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 February 2022
Vol.362

30
예술의초대 창간 30주년

COVER STORY

안은미 컴퍼니 <드래곤즈>

COLUMN

설거지의 미학(美學)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북카페 백경

2022 풀리처상 사진전 부산전시

THE PULITZER PRIZE
PHOTOGRAPHS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2022.1.21 - 5.15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한솔비비케이

Photograph courtesy of Ron Olshwanger

SHOOTING — THE — PULITZER

제6회 도슨트와 함께하는 2022 블루아트페어

BLUE ART FAIR

예술이 삶의 기준이 되다

THE WESTIN JOSUN
BUSAN

웨스틴조선 부산 호텔
해운대 동백로 67

2022.02.17.THU - 02.20. SUN

Opening Reception_02.17 THU_PM 05:40

현대미술/서양화/동양화/조각/공예

문의_051-746-0727

주최/주관_블루아트페어 운영위원회, 부산도슨트협회, 대구도슨트협회





2022

을숙도

예술

공감

부산지역 음악예술인을 모십니다!

응모자격

음악분야 (피아노, 관악, 현악, 실내악, 성악, 합창, 국악 등)에서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산지역 예술단체 및 개인

지원사항

공연당 80~150만원 지급, 무료대관 홍보일체

선발예정

16개 공연 선정

접수기간

2022.2.3.(목) ~ 2.17.(목) 오후 6시 마감

결과발표

2022.2.25.(금)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051-220-5814)

* 자세한 사항은 사하구청 고시공고란과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2022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20주년

20th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을숙도문화회관은 부산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예술인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National
Theatre
Live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원작 마크 해던 연출 마리안느 엘리엇

2022. 2. 26 | 토 | 1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전석 2만원

A production from

National Theatre



Supported by public funding from
ARTS COUNCIL
ENGLAND

UK Sponsor

sky arts

BY EXPERIENCE | HD

CONTENTS

02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February 2022 Vol.362

2022년 2월호 통권 362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2년 1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08 Column
설거지의 미학(美學)

10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파리시립극장-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 컴퍼니 <드래곤즈>

16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⑦
그림으로 고발한 화가,
아르테미지아 젠틀레스키

20 세계오페라축제 ①
바이에른 오페라축제에서
브레겐츠 페스티벌까지
전 세계 오페라축제를 만나다

24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문현동에 펼쳐진 책과 고래의 별천지
북카페 배경

28 Preview

34 Review

40 Program Guide

49 New Book

SUN	MON	TUE	W
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회관은 냉난방기 교체공사로 1~2월 두달간 휴관합니다.		1	2
6 제15회 광남유나이티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중 윤강수(010-4555-1470)	7	8	9
1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박종훈&웅산 재즈 콘서트’ 17:00 대 5만원 4만원 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4	15	1
		바리톤 최성규 독창회 19:30 챔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	◆부산시립교향악단 제19회 ‘부산시향의 말려’ 19:00 대 2만원 1만5천원 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 크리스티안 짐머만 피아노 리사이틀 17:00 대 쉼마스트미디어(02-541-317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 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1	22	2
		조현선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중 전석 3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제17회 최낙주 플루트 독주회 19:30 챔 전석 2만원/최낙주(010-4536-235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 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7 UKO오케스트라 특별음악회 17:00 중 UKO오케스트라(988-3087)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 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8	3/1	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멈과 호랑이’ 11:00 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2	3	4	5
			트리오 피아체 정기연주회 '기다림' 17:00 중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9	10	11	12
6	17	18	19
584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5천원 (07-6000)	윤동주 시에 의한 한국가곡 '동주_하늘과 바람과 별...노래' 19:30 대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2만원 에이원 아르떼(02-523-2111)	더 블로썸 제16회 정기연주회 19:30 캠 초대/더 블로썸(010-5577-3902)	뮤지컬 악극 '홍도야 우지마라' 15:00, 19:00 대 7만원5만원3만원2만원/UKO오케스트라(988-3087)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_Ensemble' 16:00, 19:30 캠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중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범과 호랑이' 11:00 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	24	25	26
공연 '팔죽할범과 호랑이' (입장) 07-6000)	중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범과 호랑이' 11:00 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기량향상 음악회_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19:00 [무관중 공연] 캠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중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범과 호랑이' 11:00 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오페라 갈라쇼 '오로라의 꿈' 16:00 대 4만원3만원2만원/이지무스 오페라단(010-9550-4649) 중 (재)부산문화회관 NT Live '한밤중에 깨어깨 일어난 의문의 사건' 15: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기량향상 음악회_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16:00 [무관중 공연] 캠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중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범과 호랑이' 11:00 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	3/3	2022 풀리처상 사진전 부산전시 1월 21일(금)-5월 15일(일)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7:00 (입장마감 오후 6:00) ※ 매주 월요일 휴관, 1월 31일(월) 정상 운영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2 풀리처상 사진전 부산전시 THE PULITZER PRIZE PHOTOGRAPHY 1월 21일 - 5월 15일 SHOOTING THE PULITZER	
공연 '팔죽할범과 호랑이' (입장) 07-6000)	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4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준 I' 19:30 대 1만원·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중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팔죽할범과 호랑이' 11:00 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60년의 전통과
진한 개성이 조합된 사운드
부산시립교향악단



20
교향악단
합창단

부산시립
희망과 감
예술의 숨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60주년 기념연주회
<회갑>

2022.11.02. (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과 함께한 50년
우리의 하모니가 부산을 넘어 세계로
부산시립합창단

2022년
창단 60주년
창단 50주년
립예술단이
동의 무대로
결을 전합니다



부산시립합창단 50주년 기념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2022.10.28.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설거지의 미학(美學)

이상현

춤 비평가, 본지 편집위원

저는 글 쓰는 일로 밥벌이하는 ‘글로 노동자’입니다. 매번 글쓰기 전에 설거지합니다. 주로 집에서 글을 쓰기 때문이죠. 저녁이나 아침 식사 흔적이 묻은 그릇, 냄비, 수저 따위가 깨끗이 정리되고 주방이 반짝거리면 뿌듯한 기분으로 노트북 앞에 앉습니다. 설거지가 원고 쓰기 전에 치르는 일종의 의식인 셈이죠. 이 설거지에도 미학(美學)이 있습니다. 요즘 ‘느림의 미학’, ‘수다의 미학’, ‘쇼핑의 미학’ 같이 온갖 것에 붙여 쓸 정도로 미학이 일상용어가 되었으니 설거지라고 미학이 없으라는 법이 없겠죠. 원래 ‘미학’이란 말은 18세기에 나온 독일어 ‘Ästhetica’(에스테티카, Aesthetics)를 일본에서 번역한 말입니다. 철학의 한 갈래로 ‘감성 철학’ 또는 ‘감성학’을 뜻하는데 이성,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성(감각), 지각으로 이루어지는 인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를 볼 때 드는 두렵고 벅찬 감정, 종교의식에서 느끼는 장엄한 기분 같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적 경험을 다룹니다.



그런데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하거나 숭고하지 않은 설거지에 어떤 미학이 있을까요? 설거지의 미학은 더러운 것, 부정적인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데서 오는 ‘정화(淨化)’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카타르시스(Catharsis)와 같습니다. 카타르시스는 비극에서 연민과 공포(恐怖)를 통해서 마음이 정화되고 쾌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미학의 범주에서는 ‘신명 풀이’를 들 수 있습니다. 신명 풀이는 한(恨)과 짝을 이룹니다. 한이 지나치면 자학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 연회는 한을 해학과 섞어 슬픔에만 빠지지 않게 합니다. 판소리 <심봉사> 중 심봉사가 눈뜨는 장면에서 소리꾼은 심봉사의 한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익살을 떨칩니다. 심봉사가 눈을 뜰 때 잔치에 모인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시각장애인들이 개평으로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한참 묘사해 관객이 그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일도록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심봉사와 온 세상 시각 장애인이 ‘간부’가 된 것이죠. 이 지점에서 관객의 추임새가 나옵니다. 즉 한을 신명으로 푸는 일을 소리꾼 혼자 아니라 관객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판소리와 탈춤이 이런 신명 풀이로 민중예술이 되었습니다. 굿도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 굿에서 망자를 편히 저승으로 보내는 절차가 끝나면 함께 덩실덩실 춤추면서 마음의 짐을 덜고 살아갈 의지를 찾는 것이 신명으로 마음의 상처를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애(涯)와 살(煞)을 신명으로 승화해 해원(解冤)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찌꺼기가 무시로 생깁니다. 그 때그때 털어내면 문제없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나고, 슬프고, 분하고, 외로운 감정을 켜켜이 쌓아두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만성화된 무게로 웃음이 사라지고 주위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난 것이죠. 이럴 때 누군가 내 마음의 짐을 깨끗이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이는 종교에 의탁하고, 운동하거나 여행으로 마음의 불편한 짐을 없애려 합니다. 예술에도 치유 기능이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고, 춤을 보거나 직접 추면서 몰두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예술가를 사람의 마음을 설거지해 주는 사람으로 볼 만합니다.

이런 면에서 부산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는 설거지 전문가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예전 동네마다 있었던 우물이나 빨래터와 기능이 비슷합니다. 이곳에서 빨래와 설거지를 하고 마실 물을 길어갑니다. 부산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은 삶의 고단함과 응어리를 예술로 정화하고, 맑은 물을 길어 마신 듯 삶의 갈증을 잠시나마 푸는 곳입니다. 부산 시민에게 없으면 안 될 설거지의 미학이 실현되는 장소이죠. 그동안 부산시립예술단이 시민을 위해 펼친 여러 예술 활동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산에서 보기 어려운 공연과 전시를 부산을 대표해서 제작하고 기획했습니다.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과 대중의 예술적 안목을 끌어 올리는 노력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와 노력은 대중과 예술가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대중의 예술적 안목이 높아지면, 창작 수준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초예술 전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기초예술을 산업과 연결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합니다. 그 결과 부산 소재 대학의 기초예술 학과는 융합, 미래 같은 확신할 수 없는 단어로 치장한 학과로 통합하거나 아예 폐과되었습니다. 기초예술은 그야말로 예술의 오랜 정체성을 간직한 분야입니다. 기초예술이 무너지면 문화산업도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부산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은 끝까지 부산의 기초예술을 펼치는 장으로 남아야 합니다. 동네마다 있던 우물과 빨래터가 사라지면서 마을 공동체는 급속하게 결속이 약해졌고, 그 결과 파편화한 개인들이 설거짓거리를 잔뜩 쌓아둔 채 살아갑니다. 만약 부산의 기초예술을 지키는 든든한 말형인 이곳이 건강하지 않다면, 그 부정적 여파가 시민들과 부산 예술계까지 미칠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 어디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부산 시민의 감성을 치유하는 부산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은 새해에도 부산의 예술과 문화로 소란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파리시립극장-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 컴퍼니 <드래곤즈>

2022년 새봄을 맞아 세계적인 안무가와 아시아의 용띠 무용수들이 펼치는 특별한 무대 <드래곤즈>가 부산을 찾는다.

안은미 컴퍼니 <드래곤즈>

3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전체 관람가)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예 술 감 독 안은미 음 악 감 독 장영규

무 대 감 독 김지명 조 명 감 독 장진영

영 상 감 독 이태석 영상디자인 이민정(에드나인)

무 용 수 안은미, 김혜경, 이동욱, 이재윤, 문용식,
한기태, 정다은, 이유선

밀레니얼 출연

시코 세티안토(인도네시아), 아카리 다카하시(일본),
사이다 하즈미 (말레이시아), 저우 구안팅(대만),
드위누사 아지 위나르노(인도네시아), 정지원(한국)

문의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드래곤즈>는 (재)부산문화회관이 프랑스 파리시립극장 (Théâtre de la Ville), 리옹 댄스비엔날레(Biennale de la Danse de Lyon) 등 세계적인 파트너와 함께 제작한 부산 최초의 국제 공동제작 작품이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제작극장으로서의 기능 확대와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난 2019년 연극 <율리우스 카이사르>(연출 김지용), 오페라 <리골레토>(연출 이의주)를 시작으로 2020년 연극 <결혼>(연출 김광보), 2021년 무용 <모티(MOTI)>(안무 이정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연출 이의주) 등 매년 ‘메이드 인 부산’ 공연을 제작해왔다. <드래곤즈>는 작품이 제작된 지난 2020년 관객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팬데믹 사태로 공연이 연기되면서 이번 에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국내 공연에 앞서 2021년에는 제작 파트너인 파리시립극장 등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7개국 8개 도시에서 성공적인 투어를 마침으로써 그 작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아시아의 용띠 무용수들이 몸으로 말하는 미래

‘드래곤즈’는 작품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현대무용가 안은미 예술감독과 함께 한다. 안은미는 이 작품 제작을 위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리서치하며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장한, 소위 Z세대의 무용수들을 찾아냈다. 한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5개국에서 2000년에 태어난 용띠 무용수들을 선발함으로써 준비 과정에서 ‘밀레니엄 베이비 프로젝트’라고 불리기도 했다. 안은미는 이번 작품에 대해 “동시대의 춤 문화는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또 각각 색다르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들의 힘과 특성을 바탕으로, 본 적 없는 미래로 우리를 이끄는 용의 시공을 창출해 낸 작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안은미 예술감독은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움직임으로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대만 등 세계가 주목하는 현대예술의 ‘거장’ 반열에 오른 예술가이다. 2011년 한국 작품으로는 최초로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심포카-바리>가 공식 초청되었으며, 2016년 프랑스 파리여름 축제 ‘한국주간’을 총지휘하고 2016년 제16회 한불문화상, 2009년 제1회 백남준 아트센터 국제예술상, 2002년 미국 뉴욕예술재단(NYFA)이 선정하는 아티스트 펠로십스(Artist Fellowships) 등을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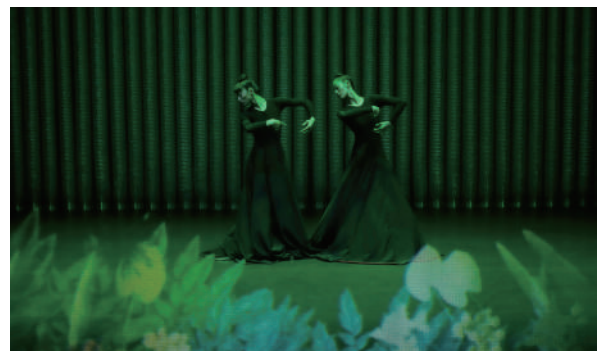
했다. 1988년 자신의 이름을 건 무용단 ‘안은미 컴퍼니’ 창단 공연을 가진 후 그동안 미국, 유럽 등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에는 ‘범 내려 온다’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날치 밴드의 리더 장영규가 음악감독을 맡았다. 장영규는 지난 1992년 한국 무용계를 발각 뒤집어 놓았던 신인 안무가 안은미의 파격적인 작품 <아릴랄 알라리요>와의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안은미 작품의 음악감독을 도맡아오고 있다.

현대무용과 3D 홀로그램 영상의 만남

용은 대체로 세상이 크게 뒤집히는 풍운기가 펼쳐질 때 인간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유연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는 초월적 힘과 지혜의 상징이다. 장차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몰라 두려운 지금의 우리에게, 용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용의 해에 태어난 밀레니얼 아시아 무용수들은 <드래곤즈>에서 그 몸을 통해 새로운 시대와 공간을 탐험하고 사유한다.

<드래곤즈>는 아시아 5개 지역의 무용수가 함께 무대에 오르기로 한 작품이었으나 팬데믹 사태가 터지면서 기획 전체가 전면 수정되어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작품으로 탄생했다. 안은미는 무용수들과 비대면 온라인을 이용해 연습과 소통을 지속했으며, 각국의 무용수들은 개별 입체(3D)영상 작업을 통해 홀로그램으로 등장해 직접 무대에 오른 한국 무용수들과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 이는 마치 거대한 영화를 통해 춤을 보게 되는 착시효과를 만들며 다양한 색감과 조명, 움직임과 소리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대무용

오금아 부산일보 문화부 기자

무용가 안은미와 아시아 용들의 만남. 온라인 창작으로 탄생한 화제의 공연 안은미 컴퍼니 '드래곤즈'가 3월 4일부터 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재)부산문화회관, 파리 테아트르드라빌(파리시립극장), 리옹댄스비엔날레가 공동제작한 작품이다. '드래곤즈'는 당초 2020년 9월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라는 장애물을 만났다. 공연이 연기되고 작품 제작 전 과정이 틀어졌지만 예술가의 창작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안은미는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안 해봤을 일'을 해가며 작품을 완성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예술가는 힘든 일을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드래곤즈'는 2000년 용의 해에 태어난 여섯 명의 아시아 무용수들과 함께 만든 작품이다. 안은미의 작품 구상은 201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네시아 댄스 페스티벌에 작품 'Let me change your name'이 오프닝 공연으로 초청되었을 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현지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멋진 춤을 보게 됐고 그 에너지에 감흥을 받았죠." 안은미는 이들과 아시아 현대무용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다. "같은 아시아지만 나라마다 언어도 생긴 것도 춤도 다르니까 '나라별로 무용수를 모아서 해보면 재미있겠다' 생각했어요." 2019년 안은미의 '밀레니엄 베이비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일본·한국 등 다섯 나라에서 무용

을 전공하는 ‘미래의 용’을 모아 작품을 만들고, 이들이 성인이 되는 2020년에 공연하기로 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공연이 연기되고 ‘드래곤즈’는 온라인 창작의 길을 걷게 됐다. “몸으로 부대끼면서 안무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니 줌(Zoom)으로 안무를 짰어요.” 코로나로 집에 머물던 아이들 중 일부는 방이 좁아 벽에 부딪히니 야외 시멘트 바닥에서 동작을 했다. 휴대폰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서 자리를 옮겨가며 참여한 아이도 있다. 현지 시각에 맞춰 1대1로 작업을 하니 안무 시간도 몇 배로 길어졌다. 안은미는 “그래도 제한된 상황에서 멈추지 않는 어른으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뻐다”고 했다.

“우리끼리 동작으로 새 언어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사랑이 뭐야’ ‘용이 뭐야’ 질문하고, 자신들이 생각한 동작을 하나씩 보내라고 했어요. 쿡구멍도 당기고, 내가 안 쓰던 동작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무용단이 만든 동작까지 다 모아서 ‘국적이 없고 국경이 없는’ 새로운 춤의 언어를 만들어냈죠.” 아이들에게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작을 만들어서 가르쳤다면 그냥 ‘용 같은 것’이 되었을 것이다. 안은미는 아이들 동작에서 손가락의 표현 같은 디테일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했다. “아이들이 만든 동작은 자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잖아요. 자기만이 만들 수 있는 것들로 이상한 ‘알파벳’이 하루에 몇 개씩 날아왔어요.” 안은미는 그걸로 아시아 공통의 언어를 만들고, 춤에 녹여냈다.

“무용수에게 내 동작을 가르치지 않아요. 팔다리 길이가 다른데 똑같은 동작이 될 수 없잖아요. 무용수가 할 수 있는 동작을 해야죠.” 안은미는 현대무용의 정신을 이야기했다. “누구나 공평하다는 거죠. 다름에서 오는 불균형, 그 불균형 안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작품 ‘드래곤즈’는 선배로서 경험을 공유하면서 후배에게서 에너지를 받고, 또 선후배가 서로 배우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아이들의 의상을 제작할 때도 온라인으로 직접 사이즈 재는 방법을 알려줬다. 완성된 의상은 국제 택배로 보냈고, 아이들에게 의상을 입고 춤추는 영상을 찍어달라고 했다. “크로마키 영상 촬영을 하





러 스튜디오에 갈 수 없으니, 아이들이 초록색 천을 사서 집에 매달고 찍었어요. 자기 친구가 찍은 것을 보내줬는데, 영상이 흔들리고 포커스가 안 맞아 다시 찍어 달라고 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에 발이 묶인 5개국 아이들이 직접 공연 무대에 서지는 못했지만, 홀로그램을 이용한 3D 영상으로 안은미 컴퍼니 무용수들과 같이 춤쳤다. 안은미는 “한국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영상으로 초대하는 것이라 이태석 영상감독과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며 “영상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내가 봐도 감탄사가 나올 지경”이라고 자랑했다. 음악감독은 이날치 밴드의 장영규가 맡았다.

‘드래곤즈’는 2021년 3월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첫 무대를 가졌다. 9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유럽 7개국 8개 도시에서 투어 공연을 펼쳤다. 세계적 안무가와 아시아 용띠 무용수들이 코로나 섀도우를 뚫고 만들어낸 무대는 많은 박수를 받았다. “희망의 메시지가 온다며 유럽에서 뜨거운 반응이 터져 나왔죠. 해외입양 됐다는 한 친구는 인증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공연을 보며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초연을 하기로 했던 부산 무대에는 해외투어까지 다 마치고 난 뒤에 서게 됐다. 안은미는 지난해 3월 서울 공연 때는 홀로그램 적용이 처음이라 식은 땀을 흘렸다고 했다. “해외 공연에서 점검까지 마쳐서 이번 부산 공연에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형태로 감상하실 수 있어요.”

‘드래곤즈’를 통해 보여주려는 용의 의미는 무엇일까? “서양에서 용의 이미지는 괴물 또는 나쁜 놈이지만, 아시아에서 용은 위트가 있고 사람들을 도우며 미래를 예견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안은미는 용을 어떤 사고에 제한에 두지 않는 아시아의 철학을 이어주는 선의의 존재로 해석했다. “용은 물에서 하늘까지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죠. 아시아의 새 시대를 이끌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어떤 태도로 미래를 접하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이 아이들이 가야 할 미래를 어떻게 마련해주어야 하는지도 질문하고 싶고요. 모든 나라는 위대하고, 모든 나라의 전통은 아름다워요.”

안은미는 이번 작품을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대무용’으로 불러 달라고 했다. 그는 “이번 공연 관객 드레스코드는 용 비늘 옷으로 하자고 해볼까”라며 호쾌하게 웃었다. 마지막으로 안은미에게 춤은 무엇인지 물었다. 끊임없이 실험적 무대를 만들어 온 세계적 무용가가 대답했다. “생명 같은 것, 분신 같은 것. 춤 말고 다른 것도 잘하는데 평생을 춤추게 만든 이유를 모르겠어. 나한테 춤은 의무 같은 것이면서 달성해야 하는 신기루 같은 것이지. (춤의) 매력이 뭐냐면 이 산을 오르면 저기 또 산이 있는 거야. 멈추지 않는 도전을 만들어주는, 생명력을 갖고 에너지를 계속 뿜을 수 있는 도전을 계속 주는 알미운 ‘그님’이시지.”

(재)부산문화회관 x 파리 테아트르드라빌 x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드래곤즈

2022

3.4 **금** 오후 7시 30분

3.5 **토**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티켓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예매 | www.bscc.or.kr / 051-607-6000(ARS 1번)

전체관람가 / 인터미션 없음 / 러닝타임 70분

주최 주관 | 부산문화회관

이음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그림으로 고발한 화가, 아르테미지아 젠텔레스키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ARTEMISIA GENTILESCHI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법도 제도도 그리고 부모도 가족도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을 때 그 압담함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201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미투(#MeToo) 운동 역시 그동안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었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17세기 이탈리아에서도 같은 억울함을 가졌던 여성이 있었다. 그는 아르테미지아 젠텔레스키(Artemisia Gentileschi, 1593-1656년경)로 성폭력에 대한 응분을 자신이 가장 잘 하는 방식인 그림으로 세상을 향해 외쳤다. “난 생존자라고!”라고 말이다.

결백을 증명해야했던 피해자 아르테미지아

아르테미지아는 17세기 초중반에 활동한 화가이다. 연극적인 화면을 담은 바로크 화가 카라바지오(Michelangelo da Caravaggio)^[도판1]의 제자인 오라치오 젠틸레스키(Orazio Gentileschi)의 딸이기도 하다. 오라치오 젠틸레스키에게는 아들도 있었지만, 가장 그림에 재능있던 딸 아

르테미지아를 제자로 키웠고 뛰어난 화가가 될 수 있게끔 지지를 해주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던 아르테미지아였지만, 인생에 큰 시련을 맞게 되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버지 오라치오가 잠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그의 동료 화가인 아고스티노 타시(Agostino Tassi, 1578-1644)에게 아르테미지아의 수업을 맡기면서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친구이자 선생님이었던 만큼 믿었던 타시가 어린 아르테미지아를 겁탈한 것이다. 아르테미지아는 타시의 얼굴을 할퀴면서 강렬하게 저항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비록 범죄의 피해자였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순결을 잃은 여성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가해자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가해자라 할지라도 피해자와 결혼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은 한국에서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어나던 일이다. 피해 여성을 자아가 있는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결을 잃은 망가진 존재로만 보았기 때문이다.

아르테미지아 역시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고, 몇 달간 결혼을 전제한 관계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막상 약속한 시기가 오니, 정작 타시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아버지 오라치오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타시의 성범죄 사실을 고발하고 재판을 받게 했다. 그렇게 아르테미지아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줄 알았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아르테미지아는 겁탈을 당하기 전 자신이 순결했음을 고문을 견디면서 증명해야 했고, 자신이 믿었던 이들이 도와주는 커녕 반대 증언을 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것을 감내해야 했다. 일곱 달에 걸쳐 이어진 재판에서 아르테미지아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결론마저 우습게 났다. 아르테미지아가 성폭력의 피해자임은 확실해졌지만, 이 혐의에 대해 타시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타시가 고향에서 이미 결혼을 했던 기혼자였고, 고향에서 처제와 간통을 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벌로만 1년 형에 처하고 로마에서 추방되었다. 결국 타시는 아르테미지아의 고통과 억울함에 대한 별을 받지 않은 것이다.

요즘으로 보면,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에 끔찍한 사건을 겪은 것도 안타까운데, 이후 온갖 사회적 시선과 직·간접적인 폭력들로 아르테미지아는 몸과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안게 되었다. 무엇보다 어린 여성에게 자신을 향한 지저분한 평가와 타락한 여자라는 프레임이 견디기 힘들었다. 다행히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그림이 있었다.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들어줄 세상이 아니었기에 수많은 감정을 그림으로 풀어내었다. 치유나 용서가 아니었다. 자신에게 가해졌던 고통에 대한 폭력적인 복수였다.

유디트로 자신을 표현한 아르테미지아

이미 재판으로 판결이 난 상황에서 아르테미지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타시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고 싶어도 그것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아르테미지아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고발하였다. 재판이 끝난 후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있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 [도판2]를 통



2



3

- 1 카라바지오, <의심하는 도마>, 1601-1602년, 캔버스에 유채, 107×146cm
독일 포츠담 산수시 회화 갤러리
- 2 아르테미지아 젠틀레스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 1611-1612년, 캔버스에 유채, 159×126cm, 이탈리아 나폴리 카로리몬테 국립박물관
- 3 아르테미지아 젠틀레스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 1620년, 캔버스에 유채, 199×162.5cm,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4 카라바지오, <유디트>, 1598년 경, 캔버스에 유채, 145×195cm, 로마 아르테 아티카 국립 갤러리 소장

해서이다. 적장인 홀로페르네스를 피어내 하룻밤을 보내고, 그의 목을 단칼에 잘라버렸던 유디트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 속 주인공 유디트는 성경 속 영웅으로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용기있는 여성이다. 그래서 살인사건이라기보다는 자신을 희생하는 위험을 감수한 의로운 행위로 추앙받는다. 하지만 이 그림 속 장면은 어떠한 숭고함보다는 한 남성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실감이 넘친다. 실제로 이 그림을 발표했을 당시 한 부인이 놀라서 기절했다고도 하다. 요즘으로 치면 19금 수준으로 폭력적인 장면이었던 것이다.

그림 속 유디트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그저 팔에 단단히 힘을 주면서 이 상황을 해결해가고 있다. 왼손으로 홀로페르네스의 얼굴을 누르고 오른손에는 단검을 쥐고 적장의

목을 자르고 있다. 아무리 자다가 공격을 당했다 할지라도 건장한 장군인만큼 유디트는 임무를 완수하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함께 간 하녀도 홀로페르네스의 손을 결박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있다. 홀로페르네스는 온 힘을 다하는 두 여성에게 제압된 황망한 상황에서 온몸을 버둥거리지만, 이겨내지 못한다. 결국 목이 잘리고 있고 그의 피가 흘러내리면서 흰 시트를 적시고 있다. 마치 눈앞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듯한 이 모습은 어두운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지점에만 빛이 조명되는 키아로스쿠로(Chiaroscuro)의 방식으로 더 극적인 효과를 준다. 오로지 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강렬한 유디트의 모습은 당시에든 큰 반향을 이루었다. 그래서 1620년에 조금은 더 화려한 옷을 입은 유디트의 모습으로 다시 제작하기도 했다. [도판3]

사실 이 주제는 오랫동안 여러 화가들에게 의해서 그려져 왔다. 그런데 유독 아르테미지아의 유디트를 강렬하게 느끼는 것일까. 아버지의 스승이었던 카라바지가 그린 유디트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이탈리아 바로크의 대표작가인 카라바지오 역시 강렬한 작품을 그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카라바지오의 유디트는 아르테미지아가 그린 모습보다 훨씬 가녀리다. **[도판4]** 사랑스러운 머리 스타일과 작고 둥근 얼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홀로페르네스의 머리와 칼을 쥐고 있는 팔은 연약해 보인다. 그리고 마치 바퀴벌레를 죽이는 듯, 이 상황이 너무 징그럽다는 표정을 하고 있다. 게다가 홀로페르네스의 모습은 어떤가? 두 팔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머리를 내어주는 듯 자세를 잡아주고 있다. 이 모습은 유디트가 비록 살인을 하긴 했지만 영웅이기에 아름답게 미화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아르테미지아의 유디트는 훨씬 설득력을 갖는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유디트가 홀로페르네스를 죽이는 장면에 몰입하게 하고, 오로지 살인에만 집중하게 한다. 주인공이 성경 속 영웅 유디트인지, 한 남자에게 복수를 하려는 여인인지 분명하지 않게 말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끔찍한 장면의 주인공인 유디트에 아르테미지아가 자신의 얼굴을 넣고, 홀로페르네스에는 타시의 얼굴을 넣었다고 보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아르테미지아의 자화상을 보면, **[도판5]** 언뜻 닮은 듯도 하다. 하지만 실제 얼마나 닮았는지에 상관없이, 아르테미지아는 타시를 포함한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했고 그들에 대한 복수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를 하는 유디트 처럼, 자신은 그 모든 고통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임을 외치고 있다.

아르테미지아가 유디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듯, 최근의 미투 운동을 비롯하여 여전히 부당한 상황에 놓은 이들이 끊임없이 외쳤다. 그리고 이들은 피해자이지만 생존자로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빛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길 아르테미지아의 그림을 보면서 기대해본다.

5 아르테미지아 젠틀레스키,
 <회화의 알레고리로서 자화상>, 1630년대,
 캔버스에 유채, 96.5×73.7cm,
 영국 원저 로얄 컬렉션 소장



바이에른 오페라축제에서
브레겐츠 페스티벌까지

전 세계 오페라축제를

OPERA FESTIVAL

만나다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위키디피아에서 오페라축제를 찾아보면 약 80개의 축제가 도시별로 축제가 열리는 주요극장과 함께 정리되어 있다. 너무 많은 숫자에 놀라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포괄적으로 음악축제 프로그램에 콘서트 오페라나 갈라 콘서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리스트에 들어 있었다. 이를테면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Verbier Festival)과 루체른 페스티벌(Lucerne Festival)은 명단에는 올라와 있지만, 콘서트 오페라 정도가 간혹 레퍼토리에 올라갈 뿐 오페라축제라고 하기에는 그 성격이 틀리다. 베르비에 페스티벌의 메인 공연장인 살레 데 콤뱅(Salle des Combin)과 루체른 페스티벌이 열리는 KKL의 경우는 임시 공연장과 콘서트홀이기에 정식 오페라를 올릴 수 없는 곳이다. 오히려 라트비아 리가, 대한민국 대구에서 열리는 오페라축제가 더 정확함에도 현재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3년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이번 2월호부터 연

재되는 '세계오페라축제'에서는 적어도 전막극이 올라가는 오페라가 중심인, 또는 오페라만으로 프로그래밍 되어있는 오페라축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2010년부터 2020까지 지난 10년 간 전 세계 주요 오페라극장에서 200편의 오페라를 만났으며, 약 100여 곳의 오페라극장과 20곳 남짓의 오페라축제 현장을 찾았다.

이번 지면을 통해서 직접 걸음했던 세계의 주요 오페라 축제에 대해서 소개해보려 한다. 2023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부산오페라하우스 역시 오페라축제와 함께 운영되어야 하며, 부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오페라축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러한 연유로 세계 주요 오페라축제의 특징과 장점을 통해 어



면 오페라축제가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바와 부합하는지, 또 이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할 오페라극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지 찾아보는 계기를 만들어볼 생각이다.

도시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오페라축제

개인적으로 방문했던 오페라축제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해보았다. 먼저 대도시에서 오페라축제가 열리는 경우이다. 말 그대로 대도시는 많은 인구수만큼 많은 이벤트들이 펼쳐진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축제들 사이에서 오페라축제가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함에도 오페라축제가 그 중심에서 세계로 알려진 곳은 독일 뮌헨의 오페라축제와 스위스 취리히 페스티벌이다.

뮌헨의 경우는 뮌헨 오페라축제(Münchner Opernfestspiele)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통상 바이에른 오페라축제(Bayerische Opernfestspiele)로 불리운다. 독일의 수많은 오페라극장 중 단연 으뜸인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Bayerische Staatsoper)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는 해마다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한 달간 펼쳐진다. 이는 시즌이 종료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대개 9월에 시즌을 시작해서 이듬해 6월까지를 정규시즌이라 하는데, 6월 말 시즌이 종료됨과 동시에 오페라축제가 펼쳐진다. 요나스 카우프만, 체칠리아 바르톨리 등 당대 최고의 오페라 가수들이 출연하며 유럽 최고 수준의 오페라 프로덕션답게 최고의 작품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취리히 페스티벌(Zürcher Festspiele)은 스위스 최대도시 취리히에서 6월 중순에 시작하여 7월 초까지 이어지며 다양한 문화행사가 어우러지지만 그 중심에는 취리히 오페라극장에서 열리는 오페라 공연이다. 뮌헨 오페라축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인 6월 중순에 시작된다.

1 장크트마르그라텐 오페라축제 <2019년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무대> 2 뮌헨 오페라축제가 열리는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 3 취리히 오페라극장





오페라축제를 통해 위대한 작곡가를 기린다

두 번째의 경우는 오페라 작곡가가 태어났거나 작곡가가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도시나 지역을 근거로 해서 펼쳐지는 축제이다. 이탈리아 북중부 작은 마을 론콜레(Roncole)에서 태어난 베르디는 이후 부세토를 거쳐 밀라노 등 대도시로 활동을 이어갔는데 인접한 도시 파르마와 부세토에서 베르디 페스티벌(Festival Verdi)이 열리고 있다. 통상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열리며, 메인 공연은 파르마의 유서깊은 오페라극장인 파르마 레지오 극장(Teatro Regio de Parma)에서 펼쳐진다. 이탈리아 루카에서 태어난 푸치니의 경우는 그가 말년을 보낸 토레 델 라고(Torre del Lago)에서 해마다 8월 푸치니 페스티벌(Puccini Festival)이 열리며 또 다른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로시니와 도니제티는 그들이 태어났던 아드리아 해의 작은 도시 페사로(Pesaro), 이탈리아 북부 베르가모(Bergamo)에서 축제가 열린다. 작곡가를 기반으로 한 오페라축제는 오페라가 태어난 나라답게 대부분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많다.

모차르트의 경우 많은 오페라를 작곡했고, 그가 태어났던 잘츠부르크에서는 그를 기리기 위해 7월~8월 한여름 두 달간 오페라를 포함한 클래식 음악 축제의 블록버스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Salzburger Festspiele)이 열린다. 2020년 어느덧 100주년을 맞이했으며, 클래식 음악축제 중 단연 최고로 손꼽힌다. 오페라극장격인 모차르트 하우스(Haus für Mozart), 축제대극장(Grosses Festspielhaus) 그리고 동굴극장이라 불리우는 펠젠라이트슐레(Felsenreitschule)를 중심으로 해마다 최고수준의 오페라 7-8편이 무대에 올려진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경우는 많은 오페라를 작곡했음에도 아직 그만을 기리는 오페라축제는 없다. 베토벤의 경우도 수많은 곡들을 작곡했지만, 오페라의 경우는 단하나 '피델리오' 밖에 남기지 못했다.

작곡가 바그너의 경우는 특별하게 바이에른 주의 북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바이로이트(Bayreuth)에서 해마다 여름이면 그가 작곡한 오페라만을 가지고 축제가 열리는데,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축제로 손꼽힌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구매하거나 바그너 협회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다. 바이로이트 축제(Bayreuther Festspiele) 개막공연에는 독일 총리가 참석할 만큼 독일 내 가장 권위 있는 음악축제이기도 하다. 바이로이트에는 그가 말년을 보냈던 하우스 반프리트(Haus Wahnfried)가 있으며, 리하르트 바그너 뮤지엄(RWM)으로 최근 리노베이션 되었고, 그 뒤편에는 바그너의 묘가 안장되어 있다.

- 4 바그네리안의 성지, 바이로이트 축제극장
- 5 마체라타 스페리스테리오 오페라축제
<2017년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무대>
- 6 베로나 오페라축제
<2017년 베르디 오페라 일트로바토레 무대>
- 7 브레겐츠 페스티벌 17/18시즌
<비제 오페라 카르멘 무대>
- 8 오랑주 오페라축제가 열리는 고대극장

고대의 건축물,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펼쳐지는 오페라축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페라축제가 열릴 만한 특별한 환경이 갖춰진 곳에서의 오페라축제이다. 대개 야외 오페라극장이 자리잡고 있으며, 고대의 건축물이나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는 지역에서 펼쳐진다. 대표적인 곳이 베로나 아레나가 있는 베로나 오페라축제(Arena de Verona Festiva)이다. 로마 콜로세움에 이어 현존하는 3번째 규모의 아레나 경기장은 음향학적으로 최고의 야외 오페라극장이다. A.D 30년에 완공되었으니 어느덧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좌석수가 15,000석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공연 역시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3개월간 7~8편의 오페라가 날짜를 달리하여 50회 가량 펼쳐진다. 그야말로 규모 면에서는 최대의 오페라축제가 기도 하다.

또 이탈리아 중동부의 작은 도시 마체라타(Macerata)에서는 스페리스테리오라는 이 도시의 상징 건물에서 마체라타 오페라축제 또는 스페리스테리오 오페라축제(Sferisterio Opera Festival)가 펼쳐진다. 유럽의 수많은 광장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펼쳐지지만, 마체라타의 경우는 그 광장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 중심이 된 무대를 배경으로 멋진 오페라축제가 공연되고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랑주 오페라축제(Chorégies d'Orange)도 비슷하다. 고대 극장에서 펼쳐지는 이 페스티벌은 앞서 베로나 오페라축제와는 다르게 1~2 편의 오페라만이 소개된다. 그렇기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며, 보통의 야외 오페라보다는 이름 있는 오페라 가수들이 무대에 오르기에, 많은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는 오페라축제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오페라축제, 브레겐츠 페스티벌(Bregenzer Festspiele)이 개최된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3국이 맞닿은 곳에 위치한 보덴호수에 자리한 7,000석 규모의 현대식 축제극장과 인공 섬 위에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Floating Stage On the Lake)한다. 동일한 작품을 두 해에 걸쳐서 올리는 방식의 선택과 집중으로 오늘날 가장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오페라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브레겐츠가 서유럽 3국이 맞닿은 교통의 요지와 호수라는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축제의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국경 근처에 위치한 장크트마르가르텐 오페라축제(Oper im Steinbruch St.Margarethen)의 경우는 채석장의 암벽 사이를 배경으로 넓은 광장 입에도 적정 잔향이 유지되는 채석장에서 이색적인 오페라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수도 빈(Wien)과는 불과 차로 한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이면 이 축제를 찾고 있다. 장크트마르가르텐 인근 뫼르비슈 호수에서는 뫼르비슈 오페레타 페스티벌(Seefestspiele Mörbisch)이 펼쳐지는데, 오페라보다는 약간은 소프트한 구성으로 뫼르비슈 호수를 배경으로 열린다.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 오페라축제가 있지만, 일단 오페라가 중심에 있는 축제를 위주로 도시별로, 작곡가별로, 지역적 특색별로 언급해보았다. 연재를 시작하며 이번 첫 글에서 나열된 오페라축제들은 이후 하나둘씩 세부적으로 글의 소재가 될 것이며, 축제 소개와 함께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부산만의 오페라축제의 방향을 모색하는 고민도 다뤄볼 생각이다.



白鯨

북카페 백경

문헌동에
펼쳐진 책과
고래의
별전지



부경대학교의 옛 이름은 부산수산대학교였다. 이름처럼 해양산업과 수산업에 특화된 대학이었고, 그런 학교답게 상징물이 백경(白鯨, 한자 그대로 풀어쓰면 하얀 고래)이었다. 대학교 정문은 고래턱뼈로 만들어진 아치였고, 교지 이름은 <백경>, 실습선 이름도 백경호, 학교축제는 백경대동제, 각종 동아리 이름에도 백경을 달고 있다. 대학마다 나름의 상징 동물을 내세우지만 이름 뿐인 경우가 많았던터라 부산수대의 백경 사랑은 더 유난해 보였고, 부러움을 샀던 것 같다. 부산공업대와 통합하여 부경대학교로 바뀌어도, 상징물은 그대로 백경이다. 우리가 찾아간 북카페 이름은 '백경'. 이 곳을 운영하는 구태경 대표도 실제 그 대학을 나왔고,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고래의 매력에 푹 빠져있었으며, 때문에 그이가 모았던 고래와 관련된 책과 음반들이 이 북카페의 곳곳에 오롯이 담겨있다. 오늘은 고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미국 작가 허먼 멜빌이 1851년에 써 낸 소설 <Moby Dick>. 세월이 흘러 미국 최고의 소설로 각광을 받은 후 일본에 소개되었을 때 <白鯨>으로 번역됐고, 한국에도 <백경>이라는 이름으로 건너온 것(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모두 <모비딕>이라는 제목을 쓰고 있긴 하다). 구태경 대표도 이 <백경>을 탐독했고, 여러 버전의 번역들을 섭렵했는데, 읽

박나무 자유기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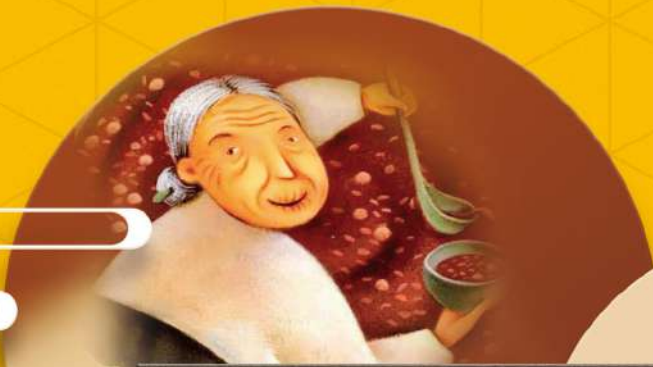
을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는 책이라고 한다. 배경뿐만 아니라 시와 소설, 기록물들을 워낙 좋아해 하나 둘 모으다 보니 좁은 집은 포화상태가 되었고, 결국 2019년 문현동의 한 아파트 상가 하나를 구해 북카페를 차리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30년을 모은 책이니, 버리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서재를 넘어서 책방을 차리는게 어쩌면 자연스런 일이기도 하겠다. 좋은 책은 혼자 간직하기보다는 널리 자랑도 하고 싶은 것 아니겠는가.

백경은 북카페라는 이름을 간판에 걸고 있는데, 카페보다는 책에 집중된 공간이다. 음료를 마시는 카페에 책을 몇 권 놓아둔 곳이 아니라, 책이 가득한 책방에서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 공간이다. 구 대표가 그동안 모은 책이 모든 벽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 헌책방으로 소개하는 것이 옳다 싶은데, 서가에 꽂힌 책이라고 또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이가 팔고 싶은 생각이 없는 책도 많기 때문에 어쩌면 귀한 책을 읽는 기쁨을 나누기 위한 공간에 가깝다고 봐야겠다. 입구에는 그이가 소개하고 싶은 신간들도 많이 있고 이 책들은 구매가 가능하다. 어쩌면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동네책방에 가깝다고 보는게 좋겠다. 현재 배경에는 13,000여권의 책과 5,000여장의 음반을 소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따로 마련된 방의 문을 닫고 들어앉아 음반을 골라 걸고, 빈티지 스피커로 감상할 수도 있다. 그러고 보면 음악감상실이기도 하네. 동네형 집에 놀러가니 책과 음반이 너무 많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둘러보는 아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고래 자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관련한 기관들과 손을 잡고 특별전을 열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다고 한다. 고래가 주인공인 소설이나 간행물들은 기본이고, 프린트된 기념품, 인형, 모형, 모빌, 고래를 노래한 음반, 포스터... 그이에게 포착된 고래들은 전부 백경에 붙잡혀 와있다. 근자에 촬영 중인 한 드라마는 고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제작진이 소품용으로 한 트럭 분량을 빌려갔을 정도라 한다. 좋은 책의 작가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아직은 코로나가 발목을 붙잡고 있어 쉽지는 않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백경에 모여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내 느낌에는 코로나가 풀리면 이 공간은 사람들로 북적일 것 같다. 그 전에 얼른 가서 찬찬히 둘러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음악감상실도 독차지해 보기를 권한다. 단, 입장료는 4천원(커피 제공)이니 준비하시고, 주인장이 없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화를 해보는 게 헛걸음을 막는 길이겠다.

■ 문의/북카페 백경(남구 수영로 74-5 무학프라자 상가 201호)
010-5544-8443, blog.naver.com/missgraywh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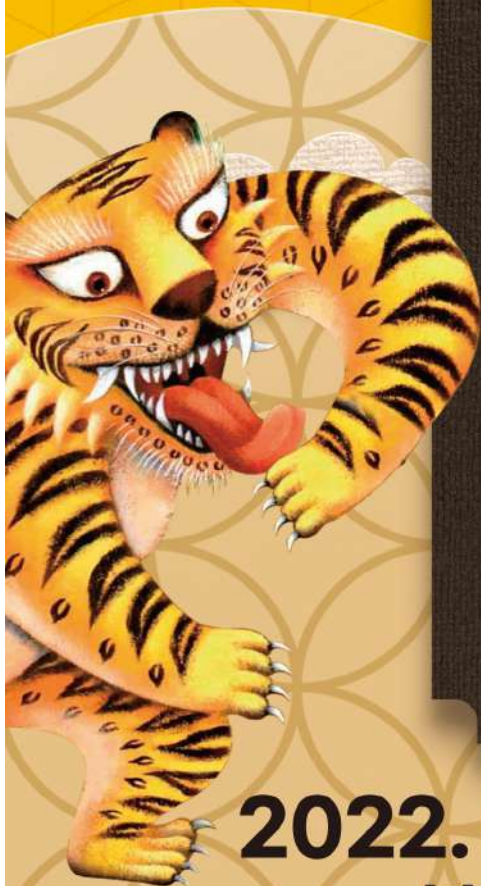


입장권
전석 2만원
(3세 이상 입장가능)

문의 및 예매
051-607-6000
(ARS 1번)
www.bscc.or.kr

팔죽한 멍과 호랑이

베스트
전래동화
뮤지컬



2022. 2. 19 |토| ~ 4. 3 |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제작 |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할인 정보 복지 할인 50% 장애인 중증(1급~3급) : 동반 1인, 장애인 경증(4급~6급) : 본인만, 국가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의상자(1급~2급) : 본인 및 동반 1인, 의상자(3급 이하) : 본인만, 유족증(국가유공자, 의사자) : 본인만 **단체 할인 60%** 10만 이상
경기회원 할인 5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회원등급별 매수제한 있음) 다자녀가정 할인 50% 자녀 3명 이상 가족(동생가족) 미취학아동 할인 30% 3세 이상~미취학아동 **학생 할인 30%** 초, 중, 고, 대학(원)생 본인
가족친화적 기업인종 할인 30%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동반 1인) 예술인패스 할인 30% 예술인패스 소지자 본인

INVITATION TO THE ARTS

가람아트홀	010-3855-8604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엑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박종훈&웅산 재즈 콘서트

-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보다도 더 달콤한 음악선물을 선사한다. 2월 13일 발렌타인데이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드라마 '밀회' 출연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피아니스트 박종훈과 명실상부 아시아의 대표 재즈 디바 웅산이 달콤한 재즈 선율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무한한 열정을 지닌 멀티 아티스트 박종훈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초로 리스트의 초절기고 연습곡 전곡을 완주한 대한민국 최고의 피아니스트 박종훈. 클래식에서부터 재즈, 탱고, 뉴에이지 등 장르를 뛰어넘는 연주는 물론이고 작곡과 편곡, 음반 프로듀싱과 녹음, 공연기획 그리고 라디오 방송 MC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활동하는 그를 보노라면 피아니스트라는 단순한 수식어 하나로는 부족하기만 하다. 특히 2014년 JTBC 드라마 '밀회'를 시작으로, 2015년 SBS 드라마 '너를 사랑한 시간', 2016년 KBS 드라마 '폐이저터너', 2018년 SBS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등 TV드라마에 종종 출연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아티스트다.

프로그램

- Chong Park :
Ballade Chopinesque,
on the theme of 'Hymn of Death'
(윤심덕의 '사의찬미' 주제에 의한
쇼팽 스타일 발라드)
- White Love
- Let's fall in love Variations
- Chopin : Nocturne No.2 in
E flat major, Op.9 No.2
- Chopin : Impromptu No.4, Op.66

연세대학교 음악대학과 미국 줄리어드 음대 대학원에서 음악수업을 받은 후 2000년 이탈리아 산레모 클라시코 국제 콩쿠르에서의 우승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박종훈은 지난 20여년간 로마, 밀라노, 피렌체, 볼로냐, 파르마, 베로나 등 이탈리아 20여 개의 도시에서 성공적인 무대를 가져왔다. 그의 부인 치하루 아이자와와 결성한 '듀오 비비드 (Duo VIVID)'는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비발디의 '사계'를 Four Hands로 연주한데 이어 2017년에는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Four Hands 레퍼토리로 편작, 세계 초연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베를린 필하모닉 홀 연주에 이어 2018년에는 그가 직접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이탈리아 베로나 필하모닉 홀에서 초연, I Virtuosi Italiani와

협연했으며, 이태리 '밀라노 피아노시티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피아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종훈은 2017년부터 작곡가별 클래식 작품과 그가 직접 작곡한 정통 클래식 곡들을 연주하는 작곡가별 창작 리사이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 UHD 클래식 음악 전문 채널 '토마토클래식'과 함께 '피아니스트 박종훈의 Romantic Seasons' 시리즈 공연을 진행하며 음악팬들과 만나 오고 있다.

농염한 보이스로 객석을 압도하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로, 수려한 외모와 중저음의 농염한 보이스로 객석을 압도하는 웅산. 섬세한 발라드부터 강한 비트의 노래까지 블루스, 펑키, 라틴 등 모든 장르를 오가며 그녀가 가진 특유의 감성과 따뜻한 음색, 훈이 담겨 있는 독특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웅산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무대로, 평단과 음악애호가들뿐 아니라 대중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웅산은 세계적인 퓨전재즈 기타리스트 '캡틴핑거' 리 릿나워를 비롯해 나단 이스트, 존 비슬리, 멜빈 데이비스 등 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아티스트적 내공과 감각을 축적해왔다. 2008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앨범상, 노래상, 같은 해 '리더스폴 베스트 보컬리스트'로 당당히 선정된 웅산은 특히 일본 '빌보드 라이브'와 일본 재즈 명예의 전당인 '블루노트'에 한국인 최초로 초청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2010년에는 일본에서 발매된 음반 'CLOSE YOUR EYES'로 세계에서 인정하는 일본 최고의 재즈 전문잡지 '스윙저널'에서 한국인 최초로 골든디스크를 수상하여 탁월한 음악성을 인정받았으며, 2011년 'ONCE I LOVED'로 일본 재즈비평 '제5회 재즈오디디스크 대상' 최우수 앨범상, 보컬부문 금상 등 2관왕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발매되었던 정규6집 앨범 'Tomorrow'의 타이틀곡이자 자작곡인 'Tomorrow'로 '제19회 일본 프로음악 녹음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발표하는 앨범마다 일본 음악계의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를 향해 도약하고 있는 웅산은 재즈보컬리스트뿐만 아니라 싱어송라이터, 뮤지컬 배우, 음악방송 MC, 국악과 클래식과의 크로스오버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 있다.

※ 프로그램은 출연진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I put a spell on you
- yo soy maria
- Koop island blues
- 썩대머리
- take five
- yesterday

일 시 2월 13일 일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말러



- 20세기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5번을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4회 정기연주회가 2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부산시향의 말러’는 지난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구스타프 말러 서거 110주년을 기념해 말러 특집으로 기획된 무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의 동시대적 해석을 위한 노력과 소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지휘자’, ‘음악가들이 신뢰하는 마에스트로’로 호평받는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이병욱의 객원지휘로 말러 자신의 인생전환기를 담은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특히 이병욱은 지난 2019년, 야심차게 준비한 ‘뉴 골드 에이지 시리즈’ 첫 작품으로 이 작품을 연주하여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총 5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 제5번’은 말러의 9개의 교향곡 중 가장 대중적이면서 아름다운 4악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말러가 극한의 고통과 최고의 희열 사이를 오가던 시기인 1901~1902년에 작곡된 작품으로, 당시 생

명이 위태롭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던 말러가 휴양지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의 아내 알마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탄생된 곡이다. 이렇듯 말러 자신의 극단적인 경험을 반영하듯 비통한 감정이 담긴 장송행진곡을 시작으로 아내 알마를 만나 점차 환희로 가득찬 피날레로 나아가는 감정의 변화가 잘 녹여져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18년 10월 인천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이병욱은 국내외 교향악단 지휘는 물론, 교향곡, 협주곡, 오페라, 발레, 현대음악에 이르는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가들이 신뢰하는 음악감독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 우수 교향악단의 객원지휘자를 역임했으며 통영국제음악제, 베니스 비엔날레, 벨기에 클라라 페스티벌, 홍콩 무지카마라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음악 축제를 통해 오케스트라 음악의 앞선 리더로, 연주자의 신뢰받는 지휘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병욱은 지난 2009년 TIMF 앙상블의 수석지휘자를 맡아 다양한 현대작품에 대한 전문지휘자로 음악의 동시대적 해석을 위한 노력과 소통을 끊임없이 추구해오고 있다.

일 시 2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전래동화 뮤지컬 **팔죽할멈과 호랑이**



● 팬데믹 사태로 한동안 운영이 중단되었던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이 2월부터 다시 문을 연다.

사랑채극장은 지난 2017년 기존의 소극장을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 공간으로, 그동안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관객과 만나왔다. 2022년 첫 무대로는 우리의 전래동화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팔죽할멈과 호랑이’를 선보인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옛이야기 가운데서도 잘 알려진 작품으로, 익살과 해학을 가득찬 이야기를 통해 우리 옛 어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공연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진행된다. 제1장 봄에서는 팔죽할멈의 이름과 왜 ‘팔죽할멈’이라 불리는지에 관해 이야기하며 제2장 여름에서는 팔발을 매려 간 팔죽할멈과 호랑이의 첫 만남을, 제3장 가을에서는 팔이 자라고 팔죽 재료를 준비하는 팔죽할멈의 이야기를, 그리고 제4장 겨울에서는 팔죽할멈과 사물들이 힘을 합쳐 호랑이를 물리치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극 중에서 호랑이가 알밤에게 눈을 얻어맞고 개똥에 발이 미끄러지다가 하면 송

곳에 엉덩이가 찢리고 돌절구에 머리를 맞는 등 힘없는 약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힘센 호랑이를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협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게, 절구통, 멍석 등 요즘은 평소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의 전통 물건들이 등장하여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편, 흥겨운 사물장단을 직접 손과 입으로 따라하면서 우리 전통가락의 신명을 느껴볼 수 있다. 공연은 4월 3일까지 휴관일인 월·화요일을 제외하고 계속된다.

한편, ‘팔죽할멈과 호랑이’에 이어 4월 6일부터 한달간은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비발디의 사계’가 펼쳐진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자극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풍부한 상상력의 세계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클래식 음악을 친근하고 재미있는 음악적 해석을 통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팔죽할멈과 호랑이’, ‘비발디의 사계’ 두 작품을 동시 구매시에는 50% 할인이 가능하다.

일 시 2월 19일(토)-4월 3일(일) 오전 11:00(월·화요일 공연없음) **장 소**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10인 이상 단체 6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NT-Live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 **영국 연극계 화제작을 라이브 스크린을 통해 즐길 수 있는 NT-라이브(National Theatre Live)가 올해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영국국립극장이 지난 2009년 세계 최초로 시도한 'NT-라이브'는 영국 연극계의 화제작을 실황으로 촬영하여 다른 지역에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과 실제 공연을 방불케하는 정교한 촬영과 편집으로 지금도 세계 65개국 이상 국가에서 상영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잡아내는 다양한 앵글과 카메라 샷으로 배우들의 섬세한 표정과 연기를 실제 공연보다 더 가까이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국내에서도 지난 2014년 국립극장에 의해 처음 소개된 후 매진행렬을 이어오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에서도 지난 2019년 10월, 연극 '프랑켄슈타인'을 시작으로 그동안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햄릿', '디오디언스', '워 호스(War Horse)', '리어왕(King Lear)' 등 화제작들을 꾸준히 소개해오면서 많은 연극팬들의 환호를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영국 공연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로런스 올리비에상(Laurence Olivier Award)을 수상한 화제작 '한밤

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과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A View from the Bridge)' 등 두 작품을 선보인다.

우선 2월 26일 상영되는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은 지난 2012년 영국 초연 이후 이듬해인 2013년 로런스 올리비에상 7개 부문 수상, 2015년 토니상 5개 부문 수상의 히트작으로, '타임스(The Times)'로부터 '탄탄한 스토리와 웅장한 장면의 경이로운 조화'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003년 발표된 마크 해던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번 작품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 '크리스토퍼'가 이웃집 개가 살해당한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둘러싼 닫힌 세계를 벗어나 용감하게 세상 밖으로 발을 디디면서 벌어지는 소년의 성장담을 그리고 있다.

4월 30일에는 2014년 로런스 올리비에상 3개 부문을 수상한, 미국 극작가 아서 밀러의 희곡을 무대화한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이 상영된다.

일 시 2월 26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만 1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4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



● **지난 한해 우리 음악의 대중화 및 현대화 작업에 꾸준히 힘써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들 중 최고의 작품을 엄선하여 들려주는 ‘국악관현악 시즌’ 첫 번째 무대로 2022년 관객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국악관현악 시즌’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파워풀한 사운드와 국악관현악의 탁월한 현대적 해석력을 바탕으로 전통음악의 절묘한 조화를 찾아내는 수석지휘자 김종욱의 새로운 하모니가 기대되는 무대로, 올 한해 3차례 열릴 예정이다.

그 첫 무대로 3월 3일 열리는 제214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수석지휘자 김종욱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조은경(소금), 이대하(거문고), 한영길(대금), 오상훈(거문고), 최영훈(아쟁)의 협연으로 부산초연곡인 ‘리진, 덕수궁으로 돌아온 나비의 춤’, ‘남도시나위에 의한 3중 협주곡’을 비롯해 ‘파미르고원의 수상곡’, 거문고협주곡 ‘비상’을 들려준다.

첫 곡인 작곡가 성화정의 ‘리진, 덕수궁으로 돌아온 나비의 춤’은 구한말 고종 때 궁중의 무희였던 리진의 이야기를 소재로, 궁중에서 춤을 주는 리진의 모습을 관현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능숙하게 이어가는 음악의 흐름 속에서 상상 속 ‘춘앵

전(春鶯轉)’을 추는 리진의 춤사위가 마치 드라마의 명장면처럼 흥미진진하게 이어진다. 이어지는 곡은 중국의 작곡가 조재균이 작곡한 ‘파미르고원의 수상곡’으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파미르 고원의 광활한 초원과 사막, 실원의 장대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그린 작품이다. 원래는 중국의 대표적인 관악기인 ‘디즈(笛子)’의 협연곡으로 작곡되었으나 이날 무대에서는 단원 조은경의 소금연주로 들려준다.

거문고 협주곡 ‘비상’은 작곡가 신주연이 ‘내가 택한 길이 힘들고 아프더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끈을 다시 한번 잡아본다’는 다짐을 표현한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단원 이대하의 거문고 협연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이자 중앙국악관현악단 단장으로 있는 작곡가 김성국의 남도시나위에 의한 3중 협주곡 ‘내일’로, 민속음악인 남도시나위를 소재로 작곡된 작품이다. 특히 시나위는 즉흥적인 합주곡으로, 어떤 연주자들이 모여 표현하느냐에 따라 음악의 힘이 다르게 표출되는 사람의 음악으로, 단원 한영길(대금), 오상훈(거문고), 부수석 최영훈(아쟁)이 빛어내는 환상적인 호흡에 더욱더 기대가 모아진다.

일 시 3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뜻밖의 선물 보따리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 정봉석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연극평론가

“그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박해받는 자들의 편이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은 영국의 가장 훌륭한 작가 하나를 잃었다.” -찰스 디킨스의 묘비명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뜻밖의 선물 보따리가 펼쳐졌었다.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한 <크리스마스 캐롤> 공연이 그것이다. 시립예술단 산하의 극단, 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이 협력하여 좀처럼 보기 힘든 대규모 연합공연을 선보인 것이다. 200명에 이르는 출연진들이 서로의 일정과 역할을 조율하여 하나의 무대를 완성해 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찬사받을 일 일텐데, 더군다나 최정상의 기량들을 다투어 자랑하듯이 연극과 코러스, 오케스트라와 안무가 앙상블을 이룬 무대는 가족 단위로 찾아온 관객들에게 모처럼의 예술적 향유는 물론, 부산의 예술문화에 대한 높은 자긍심마저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공연이 끝난 뒤에 길게 이어지던 커튼콜의 감동이 두 달이 지나 반추하는 지금도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찰스 디킨스(1812~1870)의 원작소설인 <크리스마스 캐롤>은 1843년의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출판되었다. 당시 빅토리아 여왕 치하의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에 따른 도시화의 영향으로 극심한 빈곤과 노동 소외의 현상을 겪고 있었다. 찰스 디킨스 또한 빚을 지고 감옥에 갇힌 아버지로 인해 소년 시절에 노동 현장을 체험하였다. 그 뒤 신문사 기자와 사회비평가로 활동하기도 했던 찰스 디킨스는 자



본주의의 한계 상황을 <올리버 트위스트>(1838)와 같은 문학 작품 속에 담아냄으로써 영국의 대문호로 인정받게 된다. 그의 명성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린 작품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다. 이 작품으로 인해 불우한 이웃을 돕고,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성탄절 문화가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서 전래동화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처럼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에브니저 스크루지 영감은 유일한 혈육인 조카 '프레드' 부부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길 청하지만 냉혹하게 거절해버린다. 홀로 일찍 잠자리에 누운 스크루지 앞에 과거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제이콥 말리'의 유령이 찾아온다. 스크루지 못지않게 구두쇠였던 말리는 생전의 업보로 인해 무거운 쇠사슬을 끌어야만 하는 신세가 되어있다. 이어 세 명의 크리스마스 영혼들이 차례로 나타나서는 스크루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 그 끝에 스크루지는 자신이 묻히게 될 무덤 앞에 이른다. 쓸쓸한 묘지의 묘비명엔 이렇게 새겨져 있다. "한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간 구두쇠 스크루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 개과천선한 스크루지가 기쁨에 넘쳐 외친다. "나는 깃털처럼 가볍고, 천사만큼 행복하고, 어린 학생처럼 유쾌하다. (...) 모든 사람들이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한 새해가 되길!"

그러나 부산시립예술단이 선보인 <크리스마스 캐롤>은 원작을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이다. 시립극단의 김지용 예술감독이 극작가이기도 하기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우선 그는 주인공인 스크루지 영감을 메리 스크루지 할머니로 바꾸었다. 원작소설에는 주요 등장인물들이 남성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비의 균형을 맞추는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메리 스크루지로 주인공이 바뀌기 위해서는 원작에서 독신으로 늙어간 스크루지 영감 대신 젊은 에브니저 스크루지에게 비련의 로맨스를 부여하여야 했다.

그렇게 다시 쓴(rewriting) <크리스마스 캐롤>의 내용은 이렇다. 젊은 시절 메리는 에브니저 스크루지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였으나, 이내 전쟁이 터져 에브니저는 참전하게 되고, 전쟁의 포

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젊어서 미망인이 된 메리는 홀로 아기를 낳아 기르지만 그마저 화재로 잃게 된다. 좌절을 딛고 부친이 남긴 유산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지만 돈을 노리고 접근해온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으면서 메리의 마음은 점점 닫혀만 간다. 구두쇠 노파가 된 메리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공장에서 캐롤 연습을 하는 아이들을 매몰차게 쫓아내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이때 메리의 사업을 도왔던 제이콥 말리의 영혼이 나타나서 메리를 이끌고 그녀의 과거를 보여준다. 그리고 미래에는 유품을 노린 도둑꾼들에 의해 파헤쳐진 메리의 무덤이 있다. 자신의 무덤 앞에서 메리는 처참한 심정이 되어 무너지는데, 말리는 마지막으로 가 볼 곳이 있다며 메리를 다시 이끌고 간다. 그곳은 에브니저가 참전하여 싸우던 전쟁터이다. 메리는 독일군의 포화 속에서 에브니저가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오열한다.

이 지점에서 부산시립예술단의 <크리스마스 캐롤>은 빛을 발한다. 메리와 에브니저의 머리 위로 크리스마스 트리 형상의 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캐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울려 퍼진다. 에브니저가 죽어가던 순간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것이다. 이때 무대 위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 과거의 에브니저와 현재의 메리가 서로를 알아보게 되고, 에브니저는 메리에게 "나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는 메리 당신"이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는다. 찰스 디킨스가 그린 최초의 시간여행 이야기는 김지용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유용하다. 찰스 디킨스의 스크루지가 자신의 무덤 앞에서 지나온 삶을 회개하는 것과 달리, 김지용의 메리 스크루지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동안 상실하고 살았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김지용의 내려티브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백현주의 작곡이다. 16곡의 합창뿐만 아니라 방직공장의 화재 장면과 포화가 난무하는 전쟁 장면 등을 실감 나게 표현한 3개의 연주곡도 극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물론 그 곡들을 훌륭하게 소화해낸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와 그에 따른 안무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부산시립예술단은 고정 레퍼토리로 삼아도 좋을 연말공연 콘텐츠를 하나 개발하게 되었다.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박수를 보낸다.

다시 새로운 희망을 향해 한 걸음

2022 부산챔버페스티벌
‘부산, 경계를 넘어’

◆ 박진홍 음악평론가

추운 겨울을 녹이는 실내악의 향연

실내악은 연주자의 작은 호흡까지 관객과 함께 공유하며 음악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장르이다. 조금 더 무대와 가까이 있으므로 음악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열기를 한층 더 느끼게 된다. 1월 7일부터 19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챔버홀과 중극장에서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부산챔버페스티벌이 열렸다. 여름을 즈음하여 열리던 페스티벌이 새해맞이 행사로 개최되어 한파와 코로나19로 얼어 붙은 관객들의 마음을 녹여 주었다. 7일 ‘설레는 여정’을 시작으로 12일 ‘열정으로의 초대’, 13일 ‘애틀부터 모던까지’, 14일 ‘부산, 경계를 넘어’, 15일 ‘부산의 문화와 미래’, 18일에는 ‘낭만 동행’, 그리고 19일 ‘새로운 시작’ 무대가 각각 열렸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실내악 무대

이번 페스티벌은 바이올린 독주회, 현악 앙상블, 성악과 현악 앙상블, 그리고 목관 앙상블 등 여러 형태의 실내악 앙상블 연주들로 구성되었다. 또 비발디, 비탈리 등 바로크부터 메다글리아, 빌라 로보스 등 현대 음악 작곡가들까지 총 21명의 작곡가들의 명곡들이 연주되었다. 또 부산지역 음악대학 앙상블과 부산음악협의 공모로 선정된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앙상블이 참여하여 부산지역 실내악 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성대학교 임병원, 부산대학교 김동욱 교수를 비롯한 부산지역 음악대학의 교수급 연주자들,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수준 높은 연주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김민지, 중앙대학교 김덕우 교수를 비롯한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도 참여하여 페스티벌을 다채롭게 하였다. 다만, 관악 앙상블 무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관악 연주 활동의 영향이라고 생각되어 더 아쉬움이 남았다.

부산, 경계를 넘어

필자는 그중 14일 저녁, 중극장에서 열렸던 ‘부산, 경계를 넘어(Beyond Frame)’ 연주를 찾았다. 이날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상급 연주자들이 꾸민 무대로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 바단조(작품번호 34), 슈베르트의 현악 3중주 내림나장조(작품번호 471) 1악장, 그리고 슈만의 피아노 4중주 제1번 내림마장조(작품번호 47)이 연주되었다.

브람스 피아노 5중주는 관현악적 색채가 짙은 곡으로 브람스의 실내악 작품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손꼽히는 명작이다. 감상하고 있는 내내 브람스의 고집스런 노력과 완벽함을 느끼게 된다. 연주는 초반부터 관객들의 눈과 귀를 빼앗았다. 1악장에서는 각 악기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고유하게 펼쳐 내면서도 단단한 구조로 뭉쳐져 통일감을 주어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피아노는 전체의 다이내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훌륭한 앙상블을 이끌어 냈다. 2악장에서 피아노는 무게감 있는 연주를 보여 주었다. 현악기가 부드러움과 섬세함, 그리고 유연함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피아노는 현악기와는 대비되는 고집스러움으로 단단한 구조감과 균형을 느낄 수 있었다. 3악장에서는 에너지 넘치는 전개를 보여 주었는데, 특히 완급조절이 잘되어 역동적인 음악의 움직임을 잘 표현하였다. 더 강렬해진 대비와 리드미컬한 음악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 4악장에서는 순간순간 바뀌는 음악의 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색채감 있는 연주를 보여 주었고, 과감하고 열정적인 엔딩을 보여 주었다.

두 번째 무대로는 슈베르트의 현악 3중주가 연주되었다. 슈베르트는 아버지가 교장으로 있던 초등학교에서 3년간 교사로 근무하였다.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그만둔 1816년, 그가 19세가 되던 해에 현악 3중주를 작곡했다. 슈베르트는 이 곡에 빈 고전주의의 정서를 한껏 담아 놓았다. 이날 연주에서 연주자들은 작품이 담고 있는 고전주의적 분위기를 잘 살렸다. 앞서 브람스의 연주가 에너지 넘치고 무게감 있는 연주였다면 슈베르트의 현악 3중주는 가볍고 날렵하며, 섬세한 연주였다. 바이올린, 비



올라, 첼로가 세심하게 자신의 역할을 풀어내려고 하였으며 리드미컬한 부분을 잘 살려 연주함으로써 활기차고 경쾌한 분위기를 잘 이끌어 냈다.

세 번째는 슈만의 피아노 4중주 연주가 무대에 올랐다. 이 곡은 슈만의 작품 시기에서 ‘실내악의 해’로 불리는 1842년에 작곡된 것으로 다른 피아노 4중주 곡들 중에서도 특히 훌륭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날 연주는 명확한 다이내믹의 변화와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음색, 그리고 각 파트와 전체 구조의 역할을 분명히 인지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밸런스가 인상적이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섬세하게, 첼로는 개성 있고 감성 짙은 표현력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피아노는 현악기의 움직임을 민첩하게 받아내어 움직였다. 특히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에서는 각 파트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멜로디를 풀어내었다.

다 카포(Da Capo), 다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2022 부산챔버페스티벌이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끝났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뜻의 다 카포!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겪고 있는 지금 다 카포와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말은 같은 지향점을 가진다. 이번 부산챔버페스티벌이 담은 바람처럼 우리의 음악도 삶도 다시 새로운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2022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걸어온 60년, 걸어갈 60년

부산시립교향악단 ‘2022년 신년음악회’

◆ 정두환 문화유목민,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22년 신년음악회가 지난 1월 21일 저녁에 있었다. 오랜만에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을 찾아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많은 공연이 취소된 가운데 올해는 풍성하게 계획된 많은 음악회들이 잘 이뤄지기를 기원하였다.

올해 신년음악회의 프로그램은 번스타인의 ‘캔디드 서곡’(1956), 카푸스틴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 Op.14’(1974), 라벨의 ‘어릿광대의 아침노래’(1918), ‘어미 거위 모음곡’(1911) 등 네곡으로 구성되었다. 필자는 카푸스틴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을 기대했다. 이 곡은 한국 초연이기도 하지만,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카푸스틴이라는 인물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기도 하였다.

우크라이나 출신인 카푸스틴(Nikolai Kapustin. 1937-2020)은 1961년 모스크바 음악원 졸업 후 10여년을 재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연주 여행을 하며 피아니스트로도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후 1980년 차이콥스키홀에서 작곡가가 직접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마지막으로 연주한 후 작곡과 자신의 작품을 녹음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그의 작품은 다양하게 연주되는 면이 있기에 이날 협연을 맡은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연주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첫 곡으로 연주된 번스타인의 ‘캔디드 서곡’은 목관과 금관 그리고 타악기의 소리 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체적인 사운드 밸런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Review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였으며, 현악기 파트의 현란함과 관악기의 경쾌함이 더해지면서 활기찬 분위기의 흐름을 이어갔다. 다양한 리듬의 변화는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즐기지 못하면 어색함을 만들어 내는데 시립교향악단의 연주는 조금 여유있는 흐름을 유지하며 관객들에게 다가왔다.

드디어 기대했던 두 번째 무대 카푸스틴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이다. 음악 애호가들에게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피아니스 김정원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1, 2, 3악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소 느린 듯 하였다. 재즈의 느낌을 조금 느리게 표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당김음의 표현이라든지 변박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사이의 감정 공유와 흐름이 없으면 다소 지루하거나 어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잘 소화하였다. 필자에게 다소 아쉬운 점은 오케스트라와의 사운드 밸런스가 조금 어색할 정도로 오케스트라가 크게 들려 피아니스트의 기교나 리듬의 패턴 변화가 잘 들리지 않는 점이 옥의 티로 느껴졌다.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를 종합적으로 이끄는 지휘자와 연주에 몰입하는 연주자들이 재즈 고유의 리듬을 느끼며 연주할 수 있어야 할 충분한 감성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후반부는 모리스 라벨의 프랑스 음악으로 꾸며졌다.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어미 거위 모음곡’, 이 두 곡 모두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개인기량을 많이 요구하기도 하면서 앙상블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곡이다. 먼저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중 바순 솔로는 연주자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다. 전체적인 앙상블의 효과는 좋았다. 이어진 ‘어미 거위 모음곡’에서 보여준 현악기의 전반적인 앙상블도 좋았다.

1945년 창단된 고려교향악단이 1957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창단으로 이어진 교향악단의 공공예술 공익성으로 볼 때, 다른 도시보다 먼저 시작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962년 창단되어 올해로 이순(耳順)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순이 되면 ‘듣는 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으니 부산 예술 특히, 교향악단으로서 부산 음악의 만형인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예술의 다른 장르를 포용하는 힘을 지녀

야 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전국 어느 교향악단보다 새로움에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교향악단이다. 국내 최초의 외국인 지휘자 마크 고렌슈타인을 영입하여 좋은 성과를 올렸으며, 이후 블라디미르 킨, 반초 차브다르스키,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리 신차오 등 외국인 지휘자를 초빙하면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지난 60년의 세월 동안 부산 출신의 지휘자로 초대 오태균, 2대 한병함, 3대 이기홍 선생을 제외하면 외국인 지휘자가 5번의 상임지휘를 맡을 정도로 포용력이 있으며, 그리고 음악적 해석이 뛰어났던 박승, 박종혁 지휘자 등 타 도시 지휘자를 영입할 정도로 음악에 열정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그 어느 도시나 단체보다 앞선 생각과 열정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창단 60주년인 올해 신년음악회는 중요하다. ‘듣는 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이순의 연륜은 시간이 흐르거나 지나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여야 하며, 이 쌓인 시간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세월을 지속적으로 쌓았을 때가 이순의 연륜이다.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가 왜 필요하였는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는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며 왜 필요한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저 새로운 해의 첫 음악회이니깐 ‘신년음악회’라 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돌아오는 신년음악회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지를 알려야 할 것이다. 올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를 신년음악회로 알려야 하며, 이 음악회는 부산시민 모두의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면을 지난 60년, 앞으로의 60년을 그리는 큰 그림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국내에서 최초로 도전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 연주의 성공에 이어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곡 전곡 연주를 예술감독 최수열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창단의 순수한 열정이 새로운 60년으로 승화되길 기대한다.

부산문화회관

트리오 피아제 정기연주회 기다림

일 시 | 2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첼리스트 정운혜, 피아니스트 박정희 등 순수한 음악에 대한 열정과 풍부한 음악적 기량으로 관객들에게 피아노 트리오의 작품 세계와 깊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결성된 트리오 피아제의 무대.

트리오 피아제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오서너스 아트홀 초청 연주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시리즈, MBC목요음악회 초청 연주, 아트뱅크코리아 20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실내악의 명곡으로 꼽히는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트리오 제2번 작품 67'과 드보르작 '피아노 5중주 제2번 작품 81'을 들려준다.

•게스트/오현(바이올린), 윤솔샘(비올라)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박종훈&웅산 재즈 콘서트

일 시 | 2월 13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보다도 더 달콤한 음악선물을 선사하는 '박종훈&웅산 재즈 콘서트'. 2월 13일 발렌타인데이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드라마 '밀회' 출연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피아니스트 박종훈과 명실상부 아시아의 재즈 디바 웅산이 달콤한 재즈 선율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피아니스트 박종훈은 연주는 물론이고 작곡과 편곡, 음반 프로듀싱과 녹음, 공연기획 그리고 라디오 방송 MC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웅산은 수려한 외모와 중저음의 농염한 보이스로 객석을 압도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테너 정광 선생님을 추모하며 바리톤 최성규 독창회

일 시 | 2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경성대학교와 이탈리아 C.S.M. Accademia, Arena Accademia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수석단원으로 있는 바리톤 최성규 독창회. 최성규는 그동안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개인 독창회를

비롯 오페라 주역 및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특히 이번 독창회는 올해 2월 타계한, 드라마틱 테너로 우리나라 성악계에 한 획을 그은 테너 정광 교수를 기리는 무대로, 한국가곡에서부터 외국가곡, 오페라 음악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그를 추모한다.

•피아노/이승운
•특별출연/바리톤 박태현, 최용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말러

일 시 | 2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세기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5번을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4회 정기연주회.

이번 '부산시향의 말러'는 지난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구스타프 말러 서거 110주년을 기념해 말러 특집으로 기획된 무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의 동시대적 해석을 위한 노력과 소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지휘자', '음악가들이 신뢰하는 마에스트로'로 호평받는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이병욱의 객원지휘로 말러 자신의 인생전환기를 담은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윤동주 시에 의한 한국가곡 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노래

일 시 | 2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C석 2만원
문 의 | Aone Arte 02-523-2111, 010-7620-7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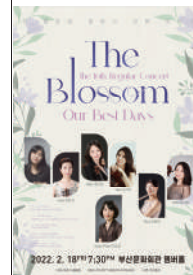
시인 윤동주의 시를 통해 그의 삶을 그려낸 서사가곡콘서트 '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노래'.

앞서 지난 1월 서울공연장을 통해 큰 감동을 선사한 이번 무대는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에 작곡가 김주원, 김지현, 신승민, 양승열, 윤소현, 이용, 정영주, 정진채 등이 작곡한 곡으로 시인 윤동주의 삶과 작품세계를 담고 있다.

특히 소프라노 김유성, 소프라노 이상은, 테너 하만택, 테너 김지호, 바리톤 최정우, 바리톤 조병주, 베이스 김대영 등 최고의 성악가들이 출연, 양승열 지휘자가 지휘하는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관객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한다.

더 블로섬 제1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더 블로섬 010-5577-3902



지난 2014년 창단된 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부산에서 흔히 연주되지 않는 곡들과 특별한 편성으로, 부산 실내악 음악의 발전과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힘써온 더 블로섬의 16번째 정기연주회.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인기 오페라의 서곡 및 주요 아리아를 실내악곡으로 편곡, 다양한 편성의 연주로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두대의 플루트를 위한 마술피리
프란츠&갈 도플러/두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리글레토 환상곡 등

•피아노/심하정
•바이올린/안은지, 정다희
•비올라/김가민 •플루트/김윤희
•첼로/김나래 •게스트 피아노/이소진

뮤지컬 악극 **홍도야 우지마라** 부산

일 시 | 2월 19일 토요일 오후 3:00, 7: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UKO 010-3563-3087



부산 대표 원로 예술인과 중견예술인, 젊은 예술인이 뜻을 함께하여 제작한 창작 뮤지컬 악극 '홍도야 우지마라'.

특히 이번 무대는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06년 설립된 부산 최초의 민간 기부 교향악단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KO)' 전영수 대표의 주도로, 원로연출가이자 원로배우인 전성환 연출가와 김해심포니에타 상임지휘자 이효상, 부산무용협회 회장 김갑용, 전 부산예총 회장 김동석 등 부산에서는 유례없는 산·구 예술인이 함께하는 상생의 무대이다.

'홍도야 우지마라'는 지난 1936년 7월, 한국 최초의 연극전용 상설극장인 동양극장에서 초연된

악극을 현 시대에 맞게 재해석, 한국을 대표하는 K-Trot을 오케스트라로 재창조하여 뮤지컬화한 작품으로, 서울에서 중견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희곡작가 김세한이 대본을, 창작발레컬 '운수좋은날' 및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숫대쟁이'의 음악감독을 역임한 중견작곡가 이영돈이 음악제작을 맡아 보다 완성된 무대를 선사한다.

홍도와 홍철의 부모님은 사고로 급사하여 둘은 천에 고아가 된다. 그런 와중에도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여러 집에 머슴살이를 전전하면서도 홍철은 순사가 되고싶은 꿈을 가지고, 이런 홍철을 위해 홍도는 기생이 되고자 결심하는데...

프로그램

홍도야 우지마라, 희망가, 목포의 눈물, 꿈속의 사랑, 사의 찬미, 낭랑 18세, 사랑에 속고 돈에 올고, 울어라 홍도야(울어라 열풍아), 빈대떡 신사

- 예술총감독/전영수
- 연출/전성환
- 지휘/이효상
- 음악/이영돈
- 안무/김갑용
- 출연/박호천(변사), 이경진, 양근하(홍도), 김경민, 이승우(홍철), 이태훈, 김동석, 전이순, 이유빈, 이주민, 박해미, 정은성 외
- 총괄기획/양보람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전래동화 뮤지컬 **팔죽할멈과 호랑이**

일 시 | 2월 19일(토)~4월 3일(일) 오전 11:00

(월-화요일 공연없음)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10인 이상 단체 6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우리의 전래동화를 가족 뮤지컬로 제작한 '팔죽할멈과 호랑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옛 이야기 가운데서도 잘 알려진 작품으로, 익살과 해학으로 가득찬 이야기를 통해 우리 옛 어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게, 절구통, 멍석 등 요즘은 평소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의 전통 물건들이 등장하여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편, 흥겨운 사물장단을 직접 손과 입으로 따라하면서 우리 전통가락의 신명을 느껴볼 수 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Ensemble

일 시 | 2월 19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매년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현악4중주에서부터 피아노3중주, 피아노4중주, 현악8중주, 타악합주 등 다양한 악기와 편성으로 앙상블 무대의 매력을 전해준다.

오후 4:00 프로그램

멘델스존/현악4중주 제6번 작품 80 중 제1악장
쇼스타코비치/5개의 소품

라흐마니노프/피아노3중주 엘레지 제1번 사단조
브람스/피아노4중주 제2번 Po.26

브루흐/현악8중주 나뭇나장조 제1악장

- 지휘, 지도/이명근(수석지휘자)
- 출연/박민지(바이올린1)&김하영(바이올린2)&정하람(비올라)&성아란(첼로), 최어진(바이올린1)&황주예(바이올린2)&최우림(피아노), 서가영(바이올린)&전성해(더블베이스)&민종호(객원, 피아노), 배다원(바이올린)&이현지(비올라)&김수정(첼로), 신호은(바이올린1)&이소정(바이올린2)&조은비(바이올린2)&한운지(바이올린4)&천

재현(비올라)&윤서영(비올라2)&윤지영(첼로)&하승연(더블베이스)

오후 7:30 프로그램

포레/피아노4중주 제1번 작품 15 제1악장
드보르작/현악4중주 작품 96 '아메리칸' 중 제1악장

Chris Hazell/Three Brass Cats

드보르작/피아노5중주 작품 81 제1악장

브루흐/현악8중주 중 제1악장

가토 다이키/Kerberos Drums

이반 트레비노/Catching Shadows

- 지휘, 지도/이명근(수석지휘자)
- 출연/김예빈(바이올린1)&송예빈(비올라)&김가원(더블베이스)&윤경원(객원, 피아노), 이소정(바이올린1)&문예빈(바이올린2)&천재현(비올라)&성아란(첼로), 한운승(트럼펫1)&김채희(트럼펫2)&김가원(호른)&정진욱(테너 트롬본)&김성준(베이스 트롬본), 차희주(바이올린)&김예진(비올라)&장선아(첼로)&박정연(객원, 피아노), 신호은(바이올린1)&이소정(바이올린2)&조은비(바이올린2)&한운지(바이올린4)&천재현(비올라1)&윤서영(비올라2)&윤지영(첼로)&하승연(더블베이스), 이경민(팀파니)&성형원(마림바), 최준서(퍼쿠션)

조현선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2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능숙하고 유려한 테크닉으로 음악의 내면적 핵심을 표현'하는 피아니스트 조현선 독주회.

퀵은 음악대학 피아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200여 회에 달하는 연주회를 가져온 조현선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부산국제음악제, 제1회 부산현대음악제, 광주국제현대음악제, 통영음악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기념연주회 등에 초청되어 무대에 선 바 있다.

조현선은 부산음악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있다.

프로그램

쇼팽/녹턴 작품 15 제1번 바장조

베토벤/15개의 변주곡과 푸가 '에로이카'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27 '월광' 등

제17회 최낙주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2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최낙주 010-4536-2351



경북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최낙주 독주회. 귀국 후 대구, 부산에서의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16차례 독주회를

가져온 최낙주는 독주 외에도 듀오 연주를 비롯해 체코 아나척 챔버오케스트라, 경북심포니, 대구아울로스, 서울아트플라 등 다양한 단체와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최낙주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우드윈드 앙상블 멤버로 활동했으며 현재 동의대학교 및 대학원, 부산예고에 출강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Flute Sonatine'라는 부제로 발터 기제킹, 피에르 상강, 앙리 뒤티외, 엘딘 버튼의 소나티네를 들려준다.

•피아노/장효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기량향상음악회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일 시 | 2월 25일 금요일 오후 7:00
 26일 토요일 오후 4:00 **챔버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독창과 중창 등 평소 합창무대와는 다른 단원들 개별 기량을 뽐내는 자리로, 관객없이 내부 기량 향상을 점검하는 음악회로 진행된다.

- 지휘/김수현(수석지휘자)
- 지도/김희정(성악지도자), 김나영, 남순천(부산시립합창단 상임단원), 이은혜(객원지도)
- 반주/이영옥(반주자), 최우림(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비상임단원)



오페라 갈라쇼 오로라의 꿈

일 시 | 2월 26일 토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4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사)아지무스오페라단 010-9550-4649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 상황을 캄캄한 밤이 지속되는 극지방 어느 마을의 이야기로 대비, 힘든 겨울 밤을 이겨낸 가족이 오로라의 아름다움과 함께 찬란한 봄을 맞이한다는 내용을 스토리텔링하며 유명 오페라 아리아로 새롭게

구성한 오페라 갈라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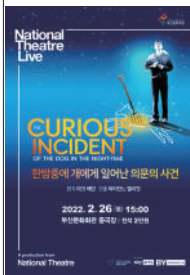
이번 공연에 이어 3월 1일에는 영화의전당 하를 연극장에서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른다.

- 지휘/윤상운
- 연주/카메라타 부산
- 소프라노/박현진, 왕기현, 신미경, 김혜경
- 테너/강학운, 김지호, 김준현
- 바리톤/강경원, 유용준 •베이스/손욱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NT-Live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일 시 | 2월 26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만 1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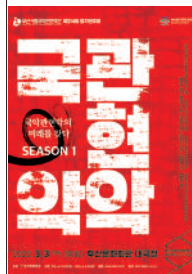


영국 연극계 화제작을 라이브 스크린을 통해 즐길 수 있는 NT-라이브 2022년 첫 번째 상영작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지난 2012년 영국 초연 이후 이듬해인 2013년 로런스 올리비아상 7개 부문 수상, 2015년 토니상 5개 부문 수상한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 '크리스토퍼'가 이웃집 개가 살해당한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둘러싼 닫힌 세계를 벗어나 용감하게 세상 밖으로 발을 디디며 벌어지는 소년의 성장담을 그리고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4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1

일 시 | 3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올 한해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들 중 최고의 작품을 엄선하여 들려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악관현악 시즌' 첫 번째 무대.

프로그램
 성화정/리진, 덕수궁으로 돌아온 나비춤[부산초연]
 조재곤/파미르고원의 수

- 상곡
 신주연/거문고 협주곡 '비상'
 김성국/남도시나위에 의한 3중 협주곡 '내일'[부산 초연]
 •지휘/김종욱(수석지휘자)
 •협연/조은경(소금), 이대하(거문고), 한영길(대금), 오상훈(거문고), 최영훈(아쟁)

(재)부산문화회관&파리시립극장-리옹댄스 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 컴퍼니 '드래곤즈'

일 시 | 3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전체 관람가)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2022년 새봄을 맞아 세계적인 안무가와 아시아의 용띠 무용수들이 펼치는 특별한 무대 '드래곤즈'. 특히 '드래곤즈'는 (재)부산문화회관이 프랑스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 리옹 댄스비엔날레(Biennale de la Danse de Lyon) 등 세계적인 파트너와 함께 제작한 부산 최초의 국제 공동제작 작품으로, 작품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현대무용가 안은미 예술감독과 아시아의 용띠 무용수들이 함께하는 무대이다.

- 예술감독/안은미
- 음악감독/장영규

음악

이태운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2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이태운 010-8526-3655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차세대 피아니스트 이태운의 무대.

이번 무대는 음악을 연구하고,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기 위한 무대이자 더 많은 배움과 꿈을 이루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무대로 스칼라티, 브람스,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김민석 클라리넷 독주회

일 시 | 2월 5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민석 010-4016-6786



화려한 테크닉과 자신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는 신예 클라리네티스트 김민석의 첫 번째 독주회.

부산예술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김민석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신예 클라리네티스트로, 이번 무대에서는

낭만적이고 화려한 클라리넷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특히 그가 사사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과 함께 이스트만 코한의 '두대의 클라리넷을 위한 소협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루이 카후작/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애가
루이비 바씨/오페라 '리골레토' 환상협주곡
외르크 비드만/클라리넷 솔로를 위한 환상곡 등
•피아노/유혜진 •클라리넷/유지훈

제35회 짜장콘서트
한국가곡 100년,
추억과 그리움의 노래들

일 시 | 2월 5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도서관 모듈극장

입장료 | 무료(사전예약, 선착순 99명)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올해부터 부산도서관에서 펼쳐지는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의 짜장콘서트 2022년 첫 무대.

지난 2020년부터 '우리를 적시고 간 노래들'이라는 테마로 무대를 가져온 음악풍경은 이번 무대에서 '한국가곡 100년, 추

억과 그리움의 노래들'이라는 부제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우리가곡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강소영, 김민석, 테너 양승엽, 바리톤 시영민이 출연하며, 연주와 반주는 양상블 프로무지카(바이올린 임지영, 첼로 이희수, 피아노 육원지)가 맡는다.

•진행/이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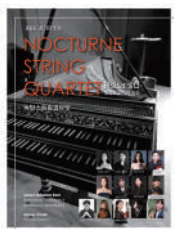
녹턴 스트링 콰르텟 제8회 정기연주회
바흐&비발디 화성과 창 의 시도

일 시 | 2월 6일 일요일 오후 2: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준형 010-4032-1679



부산에서 활동 중인 음악인들로 구성된 녹턴 스트링 콰르텟은 지난 2017년 창단 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바로크부터 현대 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현악4중주 작품을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하프시코드, 플루트, 피아노 및 현악기가 추가된 13명의 앙상블을 구성,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4번과 5번, 비발디의 '사계' 등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들려준다.

•바이올린/김잔디, 김준형, 이상엽, 이상명, 김다경
•비올라/이수연, 김지윤 •첼로/김동준, 조원호
•피아노/강주영 •하프시코드/강주호
•플루트/신혜성, 김승연

CON BRIO 제5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6일 일요일 오후 3: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콘 브리오 010-9449-3727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뭉친 'CON BRIO(콘 브리오)'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7년 8월 연산 인제요양병원 봉사연주를 시작으로 연주활동을 시작한 CON BRIO는 그동안 4차례 정기연주회와

보볼레스 요양병원 봉사연주, 열수 좋다! 꿈꾸는 동래! 문화교육 특구 페스티벌, 유니세프 아우네인형 대축제, 해운대 빛축제, 서부문화예술축제, 사상 문화소동아리 예술제, 어쩌다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단체명인 'Con Brio'는 '기운차고 활발하게 연주한다'는 음악용어에서 가져와 붙인 이름이다.

•음악감독, 지휘/김현아

One Piano Two Pianists
세 번째 이야기

일 시 | 2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박나희 010-3736-7175



피아니스트 김소원, 박나희, 오현지, 조은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4명의 피아니스트가 펼치는 피아노 앙상블 무대.

한 대의 피아노에서 들려줄 수 있는 다양한 피아노 음악을 소개하고자 지난 2019년 하우스 콘서

트로 시작한 One Piano Two Pianists 세 번째 이야기로, 클래식 음악이 보다 쉽게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들과 친숙한 작품을 선정, 프로그램 해설과 함께 음악적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쇼팽, 브람스, 포레, 피아졸라, 손 추(Shaun Choo)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독주 및 피아노 앙상블로 들려준다.

2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9일 소프라노 이연진 귀국 독창회
2022년 첫 시작을 알리는 소프라노 이연진의 귀국 독창회.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이영의 반주로 하이든, 풀랑크, 베르그, 구노, 투리나, 라흐마니노프, 마스네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16일 강한솔 정은혜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제57회 조선일보 신인 음악회를 시작으로 듀오 활동을 시작한 후 한국과 미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를 선보이고 있는 강한솔, 정은혜 피아노 듀오 무대.

미국 United States Piano Duo International Competition 입상자이자 부부 피아니스트로 세계적인 수준의 듀오 연주를 선사해온 강한솔, 정은혜는 이번 무대에서 슈베르트 '판타지 바단조 작품 940' 등 베토벤, 라벨, 비제 등 두 대의 피아노가 선사하는 매력적인 무대를 펼친다.



23일(수) 국악그룹 트락의 창작 콘서트
전통과 컨템포러리가 어우러지는 크로스오버를 통해 '옛것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온 국악그룹 트락의 무대.

국악그룹 트락은 전통음악의 골조는 유지하면서도 동시대적 감성을 가미한 음악에 대한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창작 작업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을 추구해온 그룹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팀명인 '트락'은 뜨거운 열정의 '뜨', 풍류 '락'. 프로그램 희망아리랑, 콧마, 사랑음다, 어머니의 품, 돌개바람, 아이고 사또야, 민요연곡

부산오페라 2022 정기연주회 프랑스 가곡시리즈 <월광> 3부작 No.1 사티, 몽마르트 달빛 아래

일 시 | 2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일반 4만원 청소년 2만원(2004년 이후 출생)
문 의 | 부산오페라 010-7269-8776
www.busanopera.com



부산오페라가 2022년 새롭게 기획한 프랑스 가곡 시리즈 '월광' 3부작의 첫 번째 무대. 소프라노 김수향, 피아니스트 전형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제1부 몽마르트, 제2부 달그림자, 제3부 달을 보며 등 총 3부로 나눠 사티의 대표적인 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시대를 앞서 갔던 작곡가 에릭 사티의 작품세계를 통해 프랑스 가곡에 대한 아카데미한 지식보다는 사티 음악처럼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도 일상에 매몰된 자신을 관조할 수 있는 예술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제16회 디가디가 타악기 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문 의 | 디가디가 타악기 앙상블
583-6221, 010-4855-3360



지난 2006년 창단 후 타악기의 저변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디가디가 타악기 앙상블의 정기 연주회. 디가디가 타악기 앙상블은 현재 스트로크 타악기 앙상블 단원으로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병현 음악감독을 중심으로 프로 연주단체 못지 않은 실력으로 관객들에게 타악 앙상블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에서부터 영화음악 및 드라마 주제곡, 팝송 등 다채로운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 음악감독/예병현
- 지휘/정재은
- 지도교사/한모정, 박종식
- 사회/김현지
- 피아노/김양훈

2022년 리브레 앙상블 리사이틀

일 시 | 2월 12일 토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리브레 앙상블
010-2560-1493, 010-9268-0783



신라대학교 선후배로 인연을 맺은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창단한 리브레 앙상블의 창단무대. 피아니스트 정효인, 임미진, 트롬보니스트 신성환으로 구성된 리브레 앙상블은 바쁜 삶 속에서도 음악을 통해 서로 위로가 되어

줄수 있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2022년 첫 걸음을 내딛는 리브레 앙상블의 희망과 열정을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장-필립 라모/새로운 첼물로 모음곡집 1단조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올림피단조 작품 3 제2번
생상/트롬본과 피아노를 위한 카바티나 작품 144
스크랴빈/피아노소나타 제2번 작품 19 등

O 트리오 제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박민선 010-5516-8231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박민선,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 첼리스트 김새로미로 구성된 O 트리오의 첫 번째 정기연주회.

IPB(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단원으로 만나 다양한 앙상블음악을 시도하

고자 결성한 O 트리오의 지난해 6월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창단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중적으로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토벤 피아노트리오 제5번 '유령(Ghost)'와 브람스 피아노사중주 제1번으로 두 작곡가의 젊은 날의 열정을 O 트리오만의 음악으로 들려준다. 특히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황여진이 지난 창단연주회에 이어 다시한번 O 트리오와 호흡을 맞춘다.

소리꾼 고영열& 재즈피아니스트 조운성 트리오 2022 Jazz in Nanbonga

일 시 | 2월 19일 토요일 오후 7:3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OP석·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A석 3만3천원
문의 | ㈜애영 우리들 ENT 1800-1545



세련된 소리와 깊은 감성으로 대중들에게 판소리를 널리 알리고 있는 소리꾼 고영열과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로 명성이 높은 재즈 피아니스트 조운성,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과 협연한 국내를 대표하는 최정상 베이시스트 황규호, 재즈의 본고장 미국에서 정통 재즈음악교육을 받고 귀국 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드러머 신동진이 함께하는 국악&재즈의 크로스 무대. 특히 이번 무대는 국악 및 옛 가요를 재즈로 해석한 색다른 무대로, 독보적인 실력의 연주자들이 특별한 음악의 세계로 이끈다.

엘림아트홀 기획콘서트 김경태 기타 독주회 Art of Gui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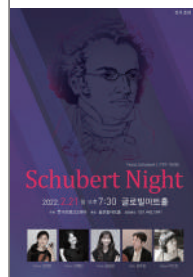
일 시 | 2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광안리 엘림아트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엘림아트홀 757-9439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을 상임지휘자, 리포니기타듀오, 기타리넷, 더아티스트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경태 독주회. 그동안 한국기타협회 콩쿠르 성인부 1위, 대구국제기타페스티벌 앙상블 2위, 통영 프린지 라이징스타 3회 수상한 김경태는 일본 후쿠오카 ForestHill 초청독주회, 한국기타협회 정기연주회 초청연주(예술의 전당),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르보브필 하모니의 협연 등 다수 무대에 서왔으며 'Song of Polyphony', 'Romance' 등 두 개의 음반을 출시한 바 있다.

Schubert Night

일 시 | 2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로알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소노두스 오케스트라, 네셔널 오케스트라, 웜 챔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정과 그의 음악친구들이 함께 하는 '슈베르트의 밤'. 음악가 슈베르트는 보헤미안적 삶을 살았지만, 그의 주변에는 항상 그를 이해하고 후원하는 친구들이 있어 매일 저녁 모여 곡을 연주하고 시를 읊으며 청춘을 함께 보냈는데 그 모임 이름이 바로 '슈베르트의 밤'이라는 뜻을 지닌 '슈베르티아데(Schubertiade)'이다. 이번 '슈베르트의 밤'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정이 슈베르트 '화려한 론도'를 피아니스트 이진성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죽음과 소녀'를 바이올리니스트 진혜빈, 비올리스트 윤솔샘, 첼리스트 김하늘, 피아니스트 이진성과 함께 들려준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일 시 | 2월 22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따뜻한 커피향과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2022년 첫 무대. 2011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부문 아시아계 최초 우승자인 소프라노 홍혜란과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로 데뷔한 테너 최원희 등 두 명의 탁월한 성악가가 꾸미는 이번 무대에서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 및 슈베르트의 가곡, 그리고 한국가곡 등 다채로운 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고전적 하루', '유뭇쇼(유명하면 못나오는 쇼)'의 진행자로 유명한 중앙일보 김호정 음악전문 기자가 함께 한다.

- 피아노/최승리

프렌치 키스_프랑스로의 초대

일 시 | 2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예술기획 미담 010-9895-0051



프랑스 낭만주의의 거장 생상스부터 현대 프랑스 신고전주의를 이끌었던 프랑시스 풀랑크까지 시대를 초월해 프랑스인들이 공유했던 감성을 그들의 작품 세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함께 수학한 소프라노 정아영, 첼리스트 홍승아, 피아니스트 배필호가 함께 한다. 소프라노 정아영은 '유연하고 다채로운 색의 목소리'와 기교로 여러 가지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뛰어난 연기력을 지닌 소프라노로, 첼리스트 홍승아는 아스펜 국제음악제, 부산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등 국내외 최정상 무대에서, 피아니스트 배필호는 바흐부터 리게티까지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극

연극 편의점 진상들

일 시 | 10월 14일(목)-2022년 2월 20일(일) 평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2:30, 5:00, 7:00, 일·공휴일 오후 2:30, 5:00(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신춘문에 등단작가인 최보윤과 연극 '체인징 파트너', '오늘도 극한직업' 등 코미디극의 히트 연출가 장세윤이 의기투합해 제작한 신작 코미디극. 번번히 취입에 실패하며 가족들 눈치보기 바쁜 최준생 상식은 담배값이라도 벌자는 마음으로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고 어느날 당첨금 30억의 로또 1등 중이 손에 들어온다. 퇴근만 기다리는 상식 앞에 이 지역 최강의 빌런, 일명 K손놈들이 들어닥치고... 편의점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K손놈들의 진상과 쫓겨난 로또 사수 대작전이 관객들을 웃음세게로 이끈다.

연극 그날밤, 너랑나

일 시 | 1월 13일(목)~3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2/1일 오후 6:00,
2/2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중학생 이상 관람가)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연극 '수상한 흥신소' 제작진과 대학로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하는 웰메이드 로맨틱 코미디극 '그날밤, 너랑나'. 이번 작품은 지난 2005년 초연된 후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대학로 코미디의 호시 '70분간의 연애'를 새롭게 재탄생시킨 작품으로, 삼촌이 운영하던 카페를 물려받아 운영하며 글을 쓰는 시나리오 작가 'He'와 잘나갔던 은행원에서 하루아침에 꿈을 쫓아 미국으로 떠난 비밀의 그녀 'She'의 15년 연애사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극이다.

•작, 연출/임길호
•출연/이한섭, 김중, 황미선

2022 가족라이브 뮤지컬 겨울이야기

일 시 | 2월 5일 토요일 오후 1:00, 3:00, 5:00,
6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4: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아이에이치컬처 1544-1555



2014년 개봉 당시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객수 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Let It Go' 열풍을 일으켰던 '겨울왕국'을 새롭게 각색, 제작한 가족뮤지컬 '겨울이야기'.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능력을 지닌 아렌델 왕국의 공주 엘사는 어느날 실수로 동생 안나의 심장을 얼음조각에 가두게 되고, 진정한 사랑만이 이 마법을 풀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안나는 무사히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이번 무대는 탄탄한 스토리와 노래, 춤은 물론 빙 프로젝트를 이용한 살아있는 무대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친정엄마와 2박3일

일 시 | 2월 12일 토요일 오후 2:00, 6:00,
13일 일요일 오후 2:00
소향씨아트 신한카드홀
입장료 | OP석·R석7만7천원, S석 6만6천원
문 의 | (주)아이스타미디어컴퍼니 1644-4146



삶의 끝에서 보내는 엄마와 딸의 마지막 2박3일 여정을 그린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이번 작품은 고혜정 작가의 동명소설을 표 원작으로, 지난 2009년 초연 이후 지난 12년간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전국투어를 이어오며 연극 최초 해외 공연(LA, 뉴욕)을 비롯 누적 관객 80만 명을 넘어선 스테디셀러 연극이다. 이번 작품은 코로나19로 1년 4개월 재정비 시간을 가진 후 새롭게 선보이는 무대로, 초연부터 지금까지 엄마역을 혼자 소화해내며 그의 인생작으로 각인된 배우 강부자와 6살의 나이로 데뷔한 후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배우 윤유선이 딸 역을 맡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어린이뮤지컬 렛잇고2

일 시 | 2월 12일~1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전석 4만4천원
문 의 | 극단 예일 02-555-0822~3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모티브로 창작한 뮤지컬 '렛잇고'를 다시 새롭게 제작한 '렛잇고2'. 엘사 공주의 대관식날, 본의 아니게 엘사의 마법에 의해 대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얼어버리고 이에 당황한 엘사는 자신의 마법을 저주하며 깊은 겨울 산속으로 사라진다. 사라진 엘사를 만나기 위해 동생 안나는 올라프와 크리스토프 그리고 순록과 함께 길을 떠나는데...

특히 이번 무대는 '겨울왕국' OST의 주옥같은 음악에 발레와의 환상적인 콜라보 무대가 더해져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극작, 연출/이광열

가족뮤지컬 미니특공대:애니멀트론

일 시 | 2월 12일~1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6만원
문 의 | (주)더하랑이엔티 1800-6567



애니메이션 '미니특공대'의 새로운 시리즈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미니특공대:애니멀트론'. '미니특공대'는 국내 유튜브 채널에서 69억 뷰를 기록하고 중국 플랫폼에서 누적 조회수 230억 뷰를 달성할 만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으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애니멀트론' 시리즈는 애니멀트론 종족에게 봉인되었던 몬스터 에그킹들이 감옥탈출에 성공하고 자신들만의 행성인 '에그킹 플레닛'을 건설하기 위해 지구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구를 지키는 최정우돌 액션 히어로와 블록버스터 특수효과 제작진의 손에서 탄생한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022라이브가족뮤지컬 플라잉 피터팬

일 시 | 2월 19일~20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5만5천원
문 의 | 아이에이치컬처 070-4045-2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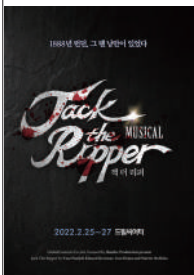


영원한 소년 피터팬과 함께 떠나는 꿈과 환상의 세계, 가족뮤지컬 '플라잉 피터팬'. 런던에 살고 있는 웬디와 존, 마이클은 어느날 밤, 이들을 찾아온 피터팬을 따라 어린이들의 천국인 네버랜드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 인어공주와 인디언 친구를 만난 그들은 후크선장이 매번 피터팬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 피터팬을 돕기로 나서는데...

전문 뮤지컬 배우들과 최고의 특수효과팀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명작동화의 환상적인 이야기와 신나는 안무, 화려한 조명 속에 무대 위로 나는 대형 해적선 등 시선을 사로잡는 무대연출로 관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2022 뮤지컬 잭 더 리퍼

일 시 | 2월 25일 금요일 오후 8:00,
2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7일 일
요일 오후 2:00, 6: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 14만원,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2009년 초연 이후 국내 외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찬사를 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한류 뮤지컬로 자리 잡은 뮤지컬 '잭 더 리퍼'. 실제 영구 미해결 사건을 모티브로 탄생한 '잭 더 리퍼'는 사건을 파고드는 수사극 형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퍼즐과도 같은 구성 속에서 러닝 타임 내내 관객을 압도하는 치밀한 스토리와 긴 장감이 관객을 사로잡는다.

특히 이번 무대는 '잭 더 리퍼 그 자체'로 불리며 한국 초연 때부터 함께해온 신성우가 2019년 10주년 기념 공연 이후 다시 한 번 연출을 맡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출연/엄기준, 이흥기, 남우현, 인성, 강태을, 김바울 외

명품악극 불효자는 읍니다

일 시 | 2월 2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7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문 의 | (주)좋은콘서트 1833-4581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자식밖에 모르고 살아온 어머니와, 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효'라는 공감대를 통해 진한 감동을 전하는 명품 악극 '불효자는 읍니다'. '불효자는 읍니다'는 지난 1998년 초연 당시 세종문화회관 전회 매진 행렬과 단 24회 공연으로 10만 명이 관람하는 등 국내 공연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작품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지금 현실에 맞게 우리의 정서를 가득 담은 신파형 악극으로서의 매력을 살리는 한편, 세련된 무대를 통해 장년세대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가깝게 다가간다.

어린이베스트셀러 뮤지컬
누가 내머리에 똥쌌어?

일 시 | 2월 26일 오전 11:00, 오후 1:30,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좋은사람들 070-4045-2302



2002년 발간 이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독일 작가 베르너 홀츠바르트의 동명의 그림책을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땅 속에 사는 두더지는 아침마다 해가 떴나, 안 떴나를 보기 위해 땅 위로 얼굴을 쏙 내민다. 그러던 어느 날, 두더지의 머리 위로 누가 썼는지 모를 똥이 떨어지고 화가 잔뜩 난 두더지는 자신의 머리에 똥을 쓴 누군가를 찾아 떠나는데... 특히 이번 무대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똥'이라는 소재를 통해 각 동물 똥의 모양들과 청각을 자극하는 소리들이 등장하면서 사고력과 판단력, 관찰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

작은영화콘서트 춘몽

일 시 | 2월 5일 토요일 오후 2: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영화인협회 628-4371



부산영화인협회가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에 마련하는 작은영화콘서트. 이번 상영회는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들을 선별, 상영하고 영화를 매개로 예술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나가고자 마련된 자리로, 상영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인 서영조 부산영화인협회 회장이 영화 장면에 담긴 상징과 은유, 연출적 효과 등을 짚어주며 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영화t수다'가 함께 진행된다. 2월에는 영화 '경주', '풍경', '이리' 등 평소 도시, 공간에 대한 관심이 특별한 장률 감독의 2016년 작품 '춘몽'으로, 옛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한 수색에 살고 있는 '비주류들의 삶'을 따뜻하게 담아낸다.

콘서트

2022 내일은미스트롯2 TOP4 소리꽃

일 시 | 2월 12일 토요일 오후 2:00, 7:00
부산벙크오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9천원
문 의 | (주)아츠로 070-8708-2041

트롯페스타: 박군설운도 나태주
조정민

일 시 | 2월 26일 오후 2:00, 7:00
부산벙크오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13만2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9만9천원
문 의 | (주)디온커뮤니케이션 1522-2274

2022 이승환 콘서트

일 시 | 2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14만3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11만원
문 의 | (주)하늘이엔티 02-333-9009

행사

2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화요일 오전 11:00,
17일(목) 오전 11:00 **시네바움** ※방역패스 적용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7일(월) 오후 7:00 일상에서 '르'를 뺄 수 있다면
•강사/박동섭(독립연구자)

8일(화), 15일(화), 22일(화) 오전 11:00 윤산의
논어아카데미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14일(월) 오후 7:00 도시재생 프로젝트(파리,
뉴욕, 시카고, 부산을 중심으로)
•강사/나준기(미디어 아티스트, 동명대 미디어 커
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7일(목) 오전 11:00 낭송과
난독 그리고 토크 '서형오 시
인과 함께하는 목요일의 브
런치'(신발 멀리 차기)

21일(월) 오후 7:00 조선표
류일기와 윤영규
•강사/이근우(부경대 사학과
교수)

28일(월) 오후 7:00 삶과 죽음의 여정
•강사/김남호(울산대 철학과 교수)

2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5천원)

문의 | 오페라바움 722-9597

...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2022년 새해 들어 처음 마련하는 2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교향곡, 협주곡 콘서트 실황을, 매주 금요일에는 '베르디 인기작 시리즈'로 베르디의 대표적인 작품을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상세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4일(금) 오텔로

11일(금) 라 트라비아타

18일(금) 아이다

25일(금) 일 트로바토레



김옥균의 영광클래식아카데미 월드뮤직&클래식콘서트홀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6:30, 목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1개월 4만원

문의 | 영광도서 070-4020-2540

김옥균 010-6367-0149

...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음악감상강좌 '영광클래식아카데미'.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매주 화요일에는 '월드뮤직' 감상회, 목요일에는 '정통클래식음악' 감상회가 개최된다.

▶ 월드뮤직감상회

영화음악의 거장 엔리코 모리코네 시네마 콘서트

음유시인 가수 '레너드 코헨'의 유럽 콘서트

뮤지컬 영화 '미스 사이공'(감독판)

사이먼 앤 가펩클 센트럴 파크 콘서트실황

▶ 클래식콘서트홀

차이코프스키 '비창교향곡',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 2번, 3번

베토벤 '합창환상곡',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클라우디오 아바도 특집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피아노협주곡 2번'

제172회 알바트로스 詩낭송콘서트

일 시 | 2월 19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알바트로스 詩낭송문학회 회장

010-6367-0149

...

• 특별출연/테너 김명재, 가수 송진영

전시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BMA 소장품 보고展

일 시 | 2021년 9월 15일(수)-2022년 2월 20일(일)

부산시립미술관 본관 2층 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

지난 1998년 개관한 부산시립미술관이 매년 수집한 소장품의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BMA 소장품 보고展'.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이우환과 그 친구들 III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 4.4

일 시 | 2021년 10월 15일(금)-2022년 3월 2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본관 3층

전시실-이우환공간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

'이우환과 그 친구들' 시리즈 세 번째 전시로, 장르를 넘나들며 진실과 허구의 이야기를 엮은 작품의 재구성성을 시도해온 프랑스 작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작품을 소개한다.

유미의 세포들 부산전

일 시 | 2021년 12월 8일(수)-2022년 3월 20일(일)

KT&G 상상마당 부산

입장료 | 균일 1만5천원

문의 | ㈜미디어엔아트 070-8893-0892

...



누적 조회수 34억뷰의 네이버 웹툰 부동의 1위 작품인 '유미의 세포들'을 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유미의 세포들' 부산전. 최근 드라마로도 방영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유미의 세포들'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중

요한 원칙과 '나' 자신이 '나'의 행복에 가장 열심히 힘쓰고 있는 존재임을 되짚어볼 수 있는 작품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그림, 영상, 음악, 키네틱 인스톨레이션, 인터랙티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로 웹툰 속 유미의 세계를 완벽히 재현한다.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8:00(입장마감 오후 7:30, 1/1일/2/1일 휴관)

고은사진미술관 해외교류전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일 시 | 1월 8일(토)-4월 17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

프랑스 사진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현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확장을 주도하는 사진 그룹 MYOP 소속 사진가 6인이 참여하는 해외교류전.

타워아트갤러리 특별기획 2020회 타워현대여성작가전

일 시 | 2월 14일(월)-2월 28일(토)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 464-3939

...





산감나무

양민주 지음 / 신생
111p / 1만원

부산의 도서출판 신생에서 펴내는 '신생 시선'이 어느덧 57권에 이르렀다. 57권은 양민주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다. 1961년 창녕 출생인 양민주 시인은 2006년 <시와 수필>을 통해 수필로, 2015년 <문학창춘>을 통해 시로 등단했다. 첫 시집 <아버지의 늙>, 수필집 <아버지의 구두>, <나뭇잎 칼>을 포함해 <산감나무>는 네 번째로 세상에 내보내는 작품이다. 66편의 시편으로 구성된 시집 <산감나무>는 산과 나무, 꽃과 새와 같이 친근하게 찾아볼 수 있는 소재를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일상적인 서정을 그려낸다. 수필가로서의 글쓰기를 통해 축적된 삶에 대한 성찰과 해안이 시의 행간 사이에도 은은히 배어있다. 양민주 시인은 시집 첫머리에 올린 '시인의 말'에 이렇게 썼다. "산꼭대기에는 하늘이 앉아있고/ 내 머리 꼭대기에는 시가 앉아있다/ 나는 산을 바라보고/ 풍경이 참 좋다고 말한다/ 산도 나를 바라보고/ 풍경이 참 좋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자연을 보며 풍경이 좋다고 말하듯, 자연도 사람을 보면서 풍경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시인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꿈꾼다면 어떨까. 삶의 결핍과 고통을 아름다운 서정으로 어루만지는 시집이다.



거장의 나무

문학산 지음 / 작가
381p / 1만 8천원

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이자 한국영화학회 회장인 영화평론가 문학산의 영화연구서. 그 이름만으로도 '영화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한·중·일 거장들과 미국·유럽 거장(임권택, 홍상수, 김기덕, 장률, 지아장거, 오즈 야스지로, 우디 앨런, 히치콕, 고다르, 루이스 부뉴엘, 페드로 알모도바르, 타르코프스키)들의 작품세계를 다룬다. 동·서양의 주목해야 할 감독들을 고르게 다루면서 그들의 영화에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들을 상세하게 짚어준다.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각 영화들의 제작 배경, 영화사적 가치, 사회·역사적 맥락까지도 전해준다.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뿐만 아니라, 영화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챕터마다 저자가 에세이 형식으로 짧은 해설을 덧붙였다. 영화전문가 이로서 역할을 하면서 영화팬과 일반독자들을 위한 대중서의 의미도 가진 책이다. 저자는 영화 작가의 작품은 시대와 작가정신 그리고 고유한 영화적인 것을 자양분으로 성장한 나무라고 말한다. 이 거목은 시대정신, 동시대의 분위기라는 토양에서 식목되고 작가정신이라는 뿌리를 통해 영화라는 가지와 줄기를 영화정신으로 뻗어가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화가의 친구들

이소영 지음 / 어크로스
335p / 1만 7천원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작 <키스>에서 남성의 몸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각형으로, 여성은 동그라미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 무늬는 인간의 생식세포를 형상화한 것이다. 클림트가 활동하던 1900년 무렵 오스트리아 빈은 사상가와 예술가들이 카페와 살롱에 모여들어 대화하고 토론하며 의견을 교환하던 시기였다. 당시 영향력 있는 사교계 인물이자 작가인 베르타 추커칸들은 클림트의 적극적인 옹호자였고, 남편 에밀 추커칸들은 빈 대학의 해부학 교수였다. 클림트는 이들을 통해 생물학의 최신 지식과 현미경으로 관찰한 세포의 모양과 형태를 접했다. 인간의 근원, 생명의 본질을 그리고자 했던 클림트는 세포에 매혹되었고, 이를 작품에 담아내었던 것이다. 미술사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흡입력 있는 드라마로 재구성해 들려주는 미술 저술가 이소영 씨가 세기의 걸작을 만든 은밀하고 매력적인 만남을 전해준다. 앤디 워홀과 장 미셸 바스키아,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처럼 미술사의 유명한 커플들은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학 선생, 알브레히트 뒤러의 동네친구 등 명작의 탄생을 낳은 운명적인 만남이 명화를 바라보는 한층 깊은 시선을 갖게 해준다.

30

예술의초대 창간 30주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예술의초대>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예술의초대>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자
2022년 올 한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창간 30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고자
지난 1월,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진행된
축하, 응원 댓글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가
2022년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992년 1월호로 첫 발을 내딛은 <예술의초대>는
부산의 유일한 문화예술정보지로,
지난 30년간 부산 예술의 역사를 기록해왔습니다.
<예술의초대>는 올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며 앞으
로도 보다 다양한 공연정보와 읽을거리로 시민들 곁
으로 가깝게 다가가겠습니다.

창간 30주년 축하 두 번째 이벤트였던 <예술의초대
5행시 백일장>에서도 많은 분들의 호응으로 성공적
으로 이벤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부산문화
회관 공식 SNS 채널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는 이후에
도 열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술의초대 창간 30주년 EVENT 3

<예술의초대>를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는 <엽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예술의초대> 2월호 엽서를 통해 창간 30주
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예술의초대>에 거는 기대나 바람을 적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추
첨 대상은 2월 17일(목)까지 도착하는 엽서에 한하며 당첨자 명단은 <예술의초대> 3월호,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
고란,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엽서를 보내주시는 분 중 30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예술의초대 창간 30주년 축하 댓글



hyunjung_jiyu_jia

예술의초대 창간 3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더 큰 관심과 사랑받길 응원할게요. 좀더 쉽고 편안하게 예술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kim.4664

예술의초대 30주년을 정말정말 축하드립니다! 부산시민으로써 너무 기쁘네요. 삶에 있어서 예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공연정보와 읽을거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sj_fang

부산 대표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벌써 30주년이라니~정말 축하드려요! 어떤 일이든 30년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30년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 2022 더 많은 사랑 받으시기를!!



dragon_strawberry_2014

#예술의초대 며칠전에도 집에서 받아보았는데 정말 알찬 구성으로 좋은소식들을 전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짬뽕 40년 50년 가즈아~~



rlaclaksenrhlaksen

10년이면 높은 산과 깊은 강이 변할 정도의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데 무려 3번의 변화를 우리 곁에서 한결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함께 해 준 예술의초대 30주년을 한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 유일 문화예술정보지로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30년도 창의성과 예술성 넘쳐나는 콘텐츠로 구독자분들과 시민들과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eunju6768

예술의초대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보다 다양한 공연정보와 읽을거리 많이 부탁드립니다~응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2022년은 모두가 행복하길~ 코로나도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속에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건강하고 활기찬 한해가 되길~ 좋은 일만 가득하고 꽃길만 걸길 응원합니다.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라고 더욱 사랑받으시길 응원합니다. 적극 소문낼게요



mermaidkjs

제 신랑이 가져온 예술의초대 보고 올해 vip회원 가입하고 공연도 예매하고 올해부터 부산문화 공연예술과 아주그냥 친해지려구요^^



donghyun56

부산 시민 곁에 예술의초대란 정보지가 있어 행복합니다. 강산이 세번이나 바뀌었지만 부산의 예술문화는 30년 동안이나 더 빛났습니다. 다양한 공연정보로 시민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즐겼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부산을 지킨 예술의초대가 있어 숨을 쉴수 있었습니다. 서른살 내 딸과 함께 한 예술의초대로 더욱 부산의 예술을 사랑할 미래로 함께 갑니다.



feelikexo

제 나이보다 많은 예술지라나... 오랜 전통의 역사가 놀랍고 '예술의초대' 로 인해 앞으로의 부산 예술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30살 생일 축하해요.



eun_sun.kim

30년이에요? 저보다 한참 어리네요.ㅋ 아직 영~~한 정보지~~ 40주년 50주년 죽~~이어가는 대중과 소통하고 예술인과 협력하는 정보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mess1289

우와 대박~ 벌써 30주년이라뇨. 항상 공연정보에 힘쓰시는 노력에 큰박수 드립니다. 앞으로 쭉~욱 예술계에 큰버팀목이되기를 응원합니다.



min_hi_woo

벌써 30주년이요? 예술의초대를 통해 지면으로, 온라인으로 그 달 부산지역 공연 소식이란 문화계 소식을 접해요. 볼펜 들고 동그라미 그려가며 일정 짜는 즐거움이 있어요. 매월 밀도있는 전문가 칼럼도 정독하려 합니다. 내내 지금까지 발간 이어가길 바랍니다.



ifelsummeriscomingandiloveyou

10여년 전 쯤 공연을 좋아하던 저에게 선생님이 예술의초대를 건네주셨어요. 그때 처음 예술의초대를 알게 된 이후 꼬박꼬박 챙겨보았는데 벌써 30주년이 되었네요!!! 저에게 공연이나 전시정보뿐만 아니라 미술, 여행 정보 등 너무나 많은걸 알려주던 예술의초대가 앞으로도 쭉 오래오래 함께 하며 계속해서 저의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chstk1918

부산시의 일상을 새롭게, 시민들의 세상을 이롭게 바꾸어준 예술의초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시즌프로그램
2022. S/S

BSCC
Season Program
2022. S/S

BSCC

SEASON

PROGRAM

2022.S/S

(재)부산문화회관 2022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클래식

음악의 온기를 전하는 실내악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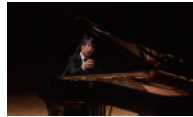
2022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Da Capo

문화 | 중극장, 챔버홀 2022. 1. 7.(금)-1. 19.(수)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 앙코르

문화 | 대극장 2022. 3. 19.(토) 5: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2. 5. 6.(금)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임지영 & 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2. 7. 22.(금)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레이 첸 &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9. 3.(토)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연극·뮤지컬

NT-Live 화제의 영국 연극을
라이브 스크린으로!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문화 | 중극장 2022. 2. 26.(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15세 이상 관람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제작 영국국립극장 | 연출 마리안느 엘리엇 | 극본 사이먼 스티븐스
원작 마크 해던 | 출연 루크 트리드웨이, 니암 쿡세, 폴 리터, 니콜라 워커



NT-Live 화제의 영국 연극을 라이브 스크린으로!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문화 | 중극장 2022. 4. 30.(토) 3:00pm
All Seats 20,000
※만 15세 이상 관람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제작 영국국립극장 | 연출 이보 반 호프 | 원작 아서 밀러
출연 마크 스트롱, 니콜라 워커



스승의 삶을 흠친 제자의 딜레마

극단 배우창고 <단편소설집>

시민 | 소극장 2022. 3. 18.(금)-19.(토)
금 7:30pm / 토 3:00pm
R 30,000원 S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연출 김세준 | 출연 윤소희, 김선희



과도한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극단 돌파구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문화 | 중극장 2022. 5. 19.(목)-20.(금)
목 2:00pm / 금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작 박찬규 | 연출 전인철 | 출연 안병식, 오해영, 윤미경, 김민하, 유동훈, 조어진



창작뮤지컬 최고의 화제작이 부산으로 귀환
뮤지컬 <팬레터>

시민 | 대극장 2022. 5. 28.(토)-29.(일)
토 3:00pm, 7:00pm / 일 3:00pm
V 9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티켓 오픈 추후 공지
프로듀서 강병원 | 연출 김태형



그 날 불행이 다가왔다...

빅픽처스테이지 <코마>

시민 | 소극장 2022. 6. 10.(금)-11.(토)
금 7:30pm / 토 3:00pm
R 30,000원 S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연출 김정환 | 출연 최현정, 선승일, 이설



발레·무용

(재)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 컴퍼니 <드래곤즈>

문화 | 중극장 2022. 3. 4.(금)-5.(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전 연령 관람

예술감독 안은미 | 음악감독 장영규 | 무대감독 김지영

조명감독 장진영 | 영상감독 이태석, 애드나인

출연 안은미, 김혜경, 김지연, 이재운, 김경민, 공지수, 이현석, 오현택, 배효섭 외



스페인의 정열이 살아 숨 쉬는 희극 발레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시민 | 대극장 2022. 5. 13.(금)-14.(토)

금 7:30pm / 토 3:00pm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안무 마리오스 프티파, 알렉산드르 고르스키 | 음악 루드비히 밍쿠스

연출 올레그 비노그라도프, 나탈리아 스피치나



국악·전통

김준수 & 하윤주 & 두번째달과 함께 떠나는
팔도유람 음악여행

김준수, 하윤주, 두번째달 <팔도유람>

문화 | 중극장 2022. 4. 17.(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콘서트

그 시절 우리들의 노래와 이야기

슬기로운 음악생활 -이세준, 홍경민, 김종서&악스

문화 | 대극장 2022.1.23.(일)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달콤한 음악선물

박종훈&웅산 재즈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2. 13.(일) 5: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족·어린이

팔죽 한 그릇이 건네는 맛있는 지혜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팔죽합법과 호랑이>

문화 | 사랑채 2022. 2. 19.(토)-4. 3.(일) 11:00a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3세 이상 관람

연출 오계영 | 출연 송판수, 박규한, 김현주, 장성현, 이지은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특별한 음악여행!

극단 영 <비발디의 사계>

문화 | 사랑채 2022. 4. 6(수)-5. 6.(금) 11:00a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3세 이상 관람

연출 이정민 | 출연 배선옥, 서희경, 송은아, 황자미 외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 Believe in Magic

시민 | 대극장 2022. 5. 21.(토)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출연 디토오케스트라, 국내 싱어즈



문화가 있는 날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BSCC 배시시 명품극장

시민 | 소극장 2022. 4. 27.(수), 5. 25.(수), 6. 29.(수)

매주 수요일 7:30pm

무료



지역프로젝트

부산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시민뜨락축제

시민 | 광장&야외무대 2022. 4. 22.(금)-5. 20.(금)

9. 23.(금)-10. 14(금)

매주 금요일 12:20pm

무료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 2022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2022. 1. 20.(목) 7:30pm
All Seats 5,000



제583회 정기연주회

2022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2. 1. 21.(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최수열 | 피아노 김정원



제58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말리

문화 | 대극장 2022. 2. 16.(수)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이병욱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대극장 2022. 3. 10.(목) 7:30pm
All Seats 5,000



제585회 정기연주회

정점

문화 | 대극장 2022. 3. 11.(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최수열 | 피아노 문지영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II

문화 | 대극장 2022. 3. 31.(목) 7:30pm
All Seats 5,000



제586회 정기연주회

이방인

문화 | 대극장 2022. 4. 1.(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올해의 예술가)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

문화 | 챔버홀 2022. 4. 21.(목) 7:30pm
All Seats 10,000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V

문화 | 대극장 2022. 5. 11.(수) 7:30pm
All Seats 5,000



제587회 정기연주회

오로라

문화 | 대극장 2022. 5. 13.(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올해의 예술가)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2. 5. 26.(목)-27.(금) 11:00am
All Seats 5,000



제588회 정기연주회

여정

시민 | 대극장 2022. 6. 17.(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이민형 | 피아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제589회 정기연주회

프라하 중앙역

문화 | 대극장 2022. 7. 15.(금) 7:30pm
R 20,000 S 15,000 A 10,000 B 5,000
지휘 김선욱 | 첼로 한재민



부산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옛날 옛적에>

문화 | 대극장 2022. 5. 4.(수) 7:30pm
5. 5.(목) 10:30am
R 20,000 S 10,000
지휘 이기선 | 연출 박정우 | 작곡·연주 이진실·이삼열 밴드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6회 정기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문화 | 대극장 2022. 6. 23.(목)-24.(금) 7:30pm
R 30,000 S 20,000 A 10,000
지휘 이기선 | 연출 김지용 |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특별연주회

2022 Summer Fantasy '시간(時間)II'

문화 | 대극장 2022. 7. 21.(목) 7:30pm
All Seats 10,000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2. 8. 17.(수) 7:30pm
All Seats 10,000
객원 지휘 T. J. Harper



특별연주회

신진지휘자 초청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2. 9. 15.(목) 7:30pm
All Seats 10,000
지휘 임희준, 김진영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7회 정기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문화 | 대극장 2022. 10. 28.(금) 7:30pm
All Seats 10,000
지휘 김광일, 김강규, 전상철, 이기선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11. 8.(화)-10.(목) 6:00pm
무료
연합지휘 이기선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8회 정기연주회 하이트 <천지창조>

문화 | 대극장 2022. 12. 8.(목) 7:30pm
R 20,000 S 10,000 A 5,000
지휘 이기선 | 연주 United Korea Orchestra
출연 김순영, 황병남, 이광근, 문동환



부산시립무용단

제85회 정기공연 THE 40

문화 | 대극장 2022. 5. 20.(금)-21.(토)
안무 이정운



Dancers and Masterpiece

별이 빛나는 <이정운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2. 7. 22.(금)-23.(토)
안무 이정운



제86회 정기공연

춤, 본색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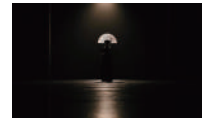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2022. 10. 21.(금)-22.(토)
안무 이정운



특별공연

안무가 LAB

문화 | 중극장 2022. 12. 2.(금)-3(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4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

문화 | 대극장 2022. 3. 3.(목) 7:30pm
지휘 김종욱 | 소금 조은경 | 거문고 이대하
대금 한영길 | 거문고 오상훈 | 아쟁 최영훈



특별연주회

만우절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2. 4. 6.(수) 7:30pm
지휘 김종욱



특별연주회

제47회 청소년 협연의 밤

문화 | 중극장 2022. 5. 3.(화) 7:30pm



제215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II

문화 | 대극장 2022. 5. 26.(목) 7:30pm
지휘 김종욱 | 가야금 김혜진



부산시립극단

제71회 정기공연

바나아저씨

문화 | 중극장 2022. 3. 11.(금)~13.(일)
평일 7:30pm / 주말 5:00pm
원작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 연출 성기웅



특별공연

가족무지컬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2022. 5. 13.(금)~6. 4.(토) 11:00am
원작 안데르센 | 대본 신서영 | 작곡 진소영
작사/연출 김지용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I

부산민주공원 작은방 공연장
2022. 5. 26.(목)~28.(토)
평일 7:30pm / 주말 5:00pm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Ensemble

문화 | 챔버홀 2022. 2. 19(토) 5:00pm



제67회 정기연주회

Com Spirito(활기있게)

문화 | 대극장 2022. 3. 22.(화) 7:30pm
지휘 이명근



특별연주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대극장 2022. 5. 24.(화) 7:30pm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The Solist

문화 | 챔버홀 2022. 6. 25.(토) 5:00pm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공연

기량향상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2. 2. 25(금) 7:00pm
2. 26.(토) 4:00pm



제161회 정기연주회

부산에 부는 바람(부부바)

문화 | 대극장 2022. 5. 28.(토) 5:00pm
All Seats 2,000
지휘 김수현



특별공연

프렌들리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2. 7. 28.(목) 7:30pm
All Seats 2,000



제162회 정기연주회

PEACE

문화 | 대극장 2022. 9. 17.(토) 5:00pm
All Seats 2,000
지휘 김수현



특별연주회

제2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11.4(금)-5(토)
무료



제163회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선물

문화 | 대극장 2022. 12.10(토) 5:00pm
All Seats 2,000
지휘 김수현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대연동 848-4)
TEL. 051-607-6000 FAX. 051-607-6288

찾아오는 교통편



지하철

지하철 2호선 대연동역 하차, 5번 출구로 나와서
유엔 교차로쪽으로 도보 10분 거리



버스

- 시내버스 51번, 68번, 101번, 134번, 138번
- 마을버스 남구9번, 남구10번

부산시민회관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16
TEL. 051-630-5200 FAX. 051-630-5288

찾아오는 교통편



지하철

1호선 범일역 하차, 2번 출구(도보 10분 소요)
2호선 문현역 하차, 3번 출구(도보 3분 소요)



버스

- 시내버스 2번, 68번, 11번, 80번, 99번, 83-1번, 63번, 57번, 138번, 23번, 83번, 10번, 108번, 81번, 43번, 52번, 5-1번, 22번, 40번, 134번, 27번, 26번, 41번, 82번, 101번, 42번, 1583번, 24번
- 마을버스 남구 3번, 남구 5번
- 좌석버스 1000번, 1003번, 1004번

2022 BSCC S/S 시즌 프로그램 시리즈 기획

BSCC
Season Program
2022.S/S

클래식 음악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Da Capo> 1.7.(금)~1.19.(수)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챔버홀
World Competiton Winner Series I 박재홍 3.19.(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orld Competiton Winner Series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5.6.(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orld Competiton Winner Series III 임지영&홍민수 7.22.(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orld Competiton Winner Series IV 레이 첸&선우예권 9.3.(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극·뮤지컬

NT Live Series | -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2.26.(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NT Live Series II -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4.30.(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극단 배우창고 <단편소설집> 3.18.(금)~3.19.(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극단 톨파구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5.19.(목)~5.20.(금)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뮤지컬 <팬레터> 5.28.(토)~5.29.(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빅피쳐스테이지 <코마> 6.10.(금)~6.11.(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발레 무용

안은미 컴퍼니<드래곤즈> 3.4.(금)~3.5.(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5.13.(금)~5.14.(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국악 전통

김준수&하윤주&두번째달 <팔도유람> 4.1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콘서트

슬기로운 음악생활 - 이세준&홍경민&김종서, 스페셜게스트 왁스 1.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박종훈&웅산 재즈 콘서트 2.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트로트 빅쇼 - 신유&진성 4.2.(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가족 어린이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팔죽할멈과 호랑이> 2.19.(토)~4.3.(일)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극단 영 <비발디의 사계> 4.6.(수)~5.6.(금)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5.21.(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문화가 있는 날

BSCC 배시시 명품극장 4.27.(수), 5.25.(수), 6.29.(수)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지역 프로젝트

시민뜨락축제 4.22.(금)~5.20.(금) 매주 금요일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2022 BSCC S/S 시즌 패키지리켓

BSCC S/S
Package
Ticket

패키지 구성오픈 안내 및 유의사항

BSCC S/S
Package
Notice

무용·국악 패키지 (40%) (100매 한정) 3편 동시 구매 시 40%할인

⑧ 180,000→108,000 ⑤ 120,000→72,000

- 안은미컴퍼니 <드래곤즈>
-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 김준수&하윤주&두번재달 <팔도유람>

연극 패키지 (50%) 3편 동시 구매 시 50%할인

⑧ 90,000→45,000 ⑤ 60,000→30,000

- 극단 배우창고 <단편소설집>
- 극단 돌파구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 박피쳐스테이지 <코마>

월드콩쿠르 우승자 패키지 (40%) (100매 한정) 4편 동시 구매 시 40%할인 매진

⑧ 220,000→132,000

-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 앙코르
-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 임지영 & 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 레이 첸 & 선우예권 슈퍼 듀오 콘서트

NT Live 패키지 (30%) 2편 동시 구매 시 30%할인

40,000→28,000

- NT Live Series I -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 NT Live Series II -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패키지 종료

- 7개 공연 동시 구매 시 40%
- 6~4개 공연 동시 구매 시 30%
- 3~2개 공연 동시 구매 시 20%
- ※ 거장과의 만남은 패키지 제외

패키지 구매 시 유의사항

- 패키지 예매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예매: www.bscc.or.kr
 - 고객센터 전화예매: 051-607-6000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동일공연 중복선택 불가)
- 모든 패키지는 묶음구성이므로, 공연별 편당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구성공연의 첫 공연 시작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패키지 취소는 첫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전화취소만 가능합니다.
 - 단, 첫 공연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일 경우, 그 전주 금요일 5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패키지 구성 공연 중 일부 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연은 패키지 할인율을 적용해 환불됩니다.
- 패키지 구성 공연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 예매가 조기매진 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 문의 및 전화예매 (평일 09:00~18:00)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607-6000(ARS 1번)
 - 한국어 문의(ARS 1번)
 - 외국어 문의(ARS 2번)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트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국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홍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중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 J K 회장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해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사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 (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051-607-6123)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00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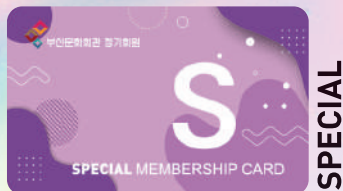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선 예매 서비스제공(일부공연 제외)**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마감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조기마감)
-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할인을 이용할 수 없음.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 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21년부터 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 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 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TEL. 051)607-6000 FAX. 051)607-611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특별한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VIP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2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2022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Da Capo

1월 7일(금)-1월 19일(수)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회차별 20매)

콘서트 ‘슬기로운 음악생활’

이세준&홍경민&김종서, 스페셜 게스트 왁스
1월 23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박종훈&웅산 재즈 콘서트

2월 13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NT-Live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2월 2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안은미컴퍼니 ‘드래곤즈’

3월 4일(금)-5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40매)

연극 ‘단편소설집’

3월 18일(금)-19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40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앙코르’

3월 19일(토)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김준수&하윤주&두번째 달

팔도유람

4월 17일(일)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NT-Live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4월 30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5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Believe in Magic’

5월 21(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연극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5월 2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5월 13(금)-14.(토) 금 오후 7:30, 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빅피쳐스테이지 ‘코마’

6월 10일(금)-11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III

‘임지영&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7월 2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IV

‘레이 첸 & 선우예권 슈퍼 듀오 콘서트’

9월 3일(토)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051-607-6116)

Busan Cultural Center
VIP

時代가 人間 에게 던지는 질문

人間界

×
×
×

문외객

2022년 부산시립극단 장막 회곡 공모

응모자격

제한없음 (단, 미발표 순수 창작품에 한함)

공모부분

창작 회곡 (원고지 250매 이상으로 대극장 공연이 가능한 작품)

접수기간

2022. 7. 11.(월) ~ 7. 29.(금) 17:00까지

제출서류

[별지1] 공모 신청서 1부

[별지2] 작품의도 및 줄거리 1부

[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4] 창작 회곡 원고 1부

(한글파일 혹은 워드파일로 표지 작성 후 함께 제출)

접수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혹은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0308side@bscc.or.kr

우 편 접 수: 2022. 7. 29.(금)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불가)

단, 공모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로 마감시간 엄수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대연동 848-4)

부산시립예술단 시립극단 담당자 박지현 앞

최종발표

2022년 8월 중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공지 및 개별 유선통보

시상내역

당선작 1편 상금 3,000만 원

*시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당선자 부담

유의사항

- 저작권 등의 문제 발생 시 당선 취소 및 표창, 수상금 회수 조치
-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응모한 원고 및 자료에 대한 반환 및 비용청구 불가능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기 예정)
- 공연 제작시, 필요에 따라 작품 수정/변경 가능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작품이 없을시 수상하지 않음

문의

- 부산시립극단 051)607-3127
- E-mail : 0308side@bscc.or.kr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4회 정기연주회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World EXPO 2030
BUSAN, KOREA

국악관현악의 미래를 찾다 SEASON 1

리진, 덕수궁으로 돌아온 나비의 춤 (성화정) 지휘 김종옥 소금 조은경 거문고 이대하 대금 한영길 거문고 오상훈 아쟁 최영훈
남도 시니위에 의한 3중 협주곡 '내일' (김성국)

2022. 3. 3 THU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2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1층) 10,000원 • S석(2층)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 (ARS 1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했을 뿐이에요.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년
내 인생을
훑친 거야.

Collected Stories

단편소설집

2022. 3.18.(금) ~ 19.(토) 금 7:30pm 토 3: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작 도널드 마굴리스 | 연출 김세준 | 출연 김선희, 윤소희 |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관람가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 제작 극단 배우창고 | R 30,000원 S 20,000원 | 예매 및 문의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051-607-6000(ARS 1번)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Ⅰ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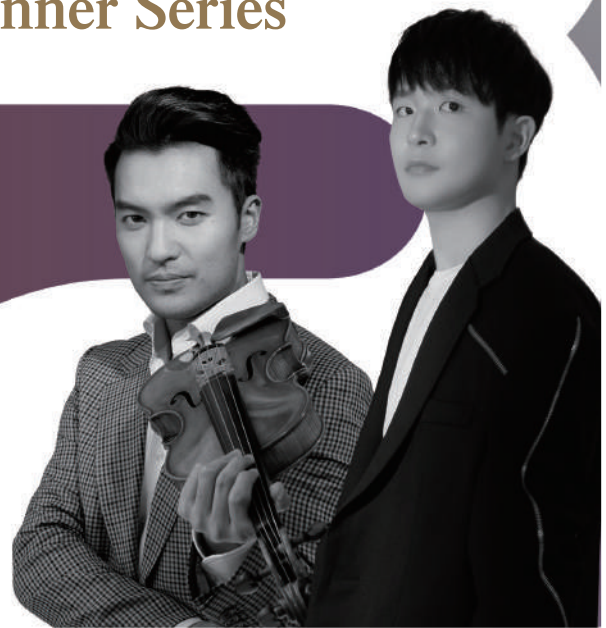
Ⅱ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World Competition Winner Series



Ⅲ 임지영 & 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Ⅳ 레이 첸 &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 Ⅰ 3.19(SAT) 5: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 Ⅱ 5. 6(FRI)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 Ⅲ 7.22(FRI)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 Ⅳ 9. 3(SAT)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40% R석 220,000원
→ 132,000원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패키지
(4편 동시 구매 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051-607-6000(ARS 1번) / www.bscc.or.kr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10% Discount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썸머니
(\$100 이상 구매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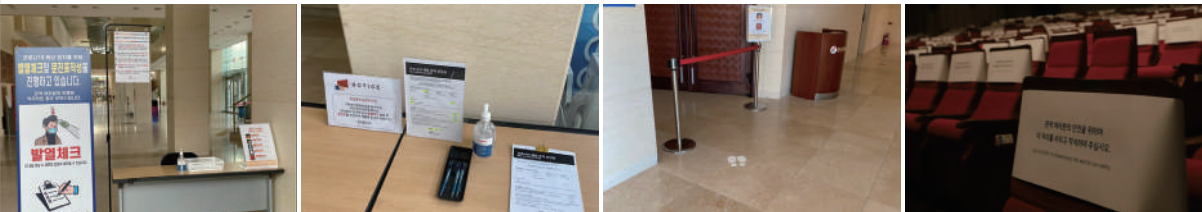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 부산문화회관 공연장

이용수칙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한 공연장 이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관객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공연장 입장 전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마스크 미착용 시 공연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개인 마스크를 필히 착용 후 방문해주세요.
- ✓ 티켓을 직접 절취하신 후 티켓의 왼쪽 부분(또는 작은 쪽 부분)을 수표함에 직접 넣어주세요.
-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객석'에 맞게 지정된 좌석에 착석바랍니다.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2. 2. 28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Food & Coffee

- | | |
|------------|-----------------|
| ① 612-9566 | ⑪ 070-755-2188 |
| ② 624-9776 | ⑫ 611-3973 |
| ③ 626-7111 | ⑬ 908-1111 |
| ④ 611-4241 | ⑭ 625-9402 |
| ⑤ 626-4448 | ⑮ 626-2292 |
| ⑥ 622-7412 | ⑯ 010-3996-6498 |
| ⑦ 611-3589 | ⑰ 623-0772 |
| ⑧ 628-8009 | ⑱ 628-3832 |
| ⑨ 621-7040 | ⑲ 714-3559 |
| ⑩ 621-5788 | |

Music & Art / etc.

- | |
|----------------|
| ① 868-3311 |
| ② 868-3311 |
| ③ 625-7275 |
| ④ 628-2592 |
| ⑤ 622-1456 |
| ⑥ 621-6669 |
| ⑦ 626-7900 |
| ⑧ 080-337-3370 |
| ⑨ 622-9722 |
| ⑩ 625-8704 |

COUPON



대연스포츠센터 킹스볼링장 1층
051)714-3559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50
051)513-4500



우표

--	--	--	--	--



독자의견

<예술의초대>창간 30주년 기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IN VITATION TO THE ARTS
2022 FEBRUARY

Happy
Valentine's
Day!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달콤한 음악선물

JAZZ CONCERT

박종훈 & 웅산

—
2022.
2.13^{SUN}
5:00^{PM}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티켓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 예매 및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www.bscc.or.kr, 051-607-6000)

인터파크 티켓 (1544-1555)